

리아호나

마음과 가정을 변화시키는 성전, 24, 28쪽

선교 사업, 친구, 가족:

성탄절에 관한 세 가지 추억, 40, 43, 44쪽

포장이 필요 없는 네 가지 선물, 54쪽

성탄절 별의 의미, 66쪽



© WALTER CRANE, 복사 금지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 월터 레인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누가복음 2:8~11)



리아호나, 2012년 12월호

메시지

- 4 제일회장단 메시지: 성탄절 정신을 다시 발견하도록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7 방문 교육 메시지: 방문 교육은 구원 사업입니다

표지
 앞: 에리조나 메사 성전 사진, 켄터스 리드 촬영. 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성전 사진, 빌리 린 앨런 촬영. 호주 시드니 성전과 불빛 사진: 콜린 리저트우드 촬영.



특집 기사

- 10 빛과 간증을 전통으로
엘 톰 페리 장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은 교회 조직의 뒷받침을 받는 개인과 가족, 그리고 가정입니다.
- 16 역경을 뒤로하고
데이비드 에스 백스터 장로
주님의 도움으로 역경을 뒤로하고 어둠에서 찬란한 빛 가운데로 나아올 때가 올 것입니다.
- 20 선지자들이 성탄절을 보내는 방법
로라 에프 윌리스
후기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성탄절의 정신을 잘 나타낸다.
- 24 거룩한 탈바꿈
애런 엘 웨스트
한 언덕이, 한 가족이 탈바꿈하다.

- 32 계명을 지킬 때 오는 안전과 평화
게리 이 스티븐슨 감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구현된 치료책은 행복에 이르는 길을 제시합니다.

교회 본부 기사

- 8 우리의 믿음: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었다
- 31 교회에서 봉사하며: 봉사를 통해 그분의 사랑을 느끼다
미셸 와스덴
- 36 후기 성도의 소리
- 74 교회 소식
- 79 가정의 밤 제언
-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햇님반, 공보, 복음의 기쁨
쿠엔틴 엘 쿡 장로



40

40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안에 있는 성탄절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43 성탄절 장식, 그리스도와 같은 친구들
메리 앤 쿡
1984년의 성탄절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44 성탄절 손수건
스콧 엠 무이
왜 어머니는 언니에게 매년 손수건을 선물했을까?



이번 호 잡지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단서: 성탄절 장식

54



28 영원한 가족에 초점을 맞추며
민디 레이 프리드먼
두 청소년의 모범이 부모를 어떻게 도왔는가?

46 질의응답: “저 자신도 성전에 대해 잘 모르는데 친구가 성전에 대해 질문하면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48 어떻게 그리스도께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구구를 기쁘게 해 드릴 수 있는 세 가지 선물

49 포스터: 엮으려 절하세

50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데이트에 관해서
래리 엠 김슨

52 가족이 있기에
히카리 로프터스
이나우, 에린, 아디나는 왜 그들의 가족이 그들에게 중요한지 이야기한다.

54 포장할 수 없는 선물
엘리스 알렉산드리아 홈스
포장이 필요 없는 네 가지 잊을 수 없는 선물 아이디어.

56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고린도전서 15:20~22

57 선교 임지에서: 주린 자를 먹이며
맬린 시 월콕스

58 집사로서 함께 성장해요
이 두 집사는 서로 다르지만, 적어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60

59 특별한 증인: 나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나요?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60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
레이철 린 바우어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사랑을 보일 수 있었을까? 나는 집에서 그 답을 찾았다.

62 우리들 이야기

63 빛나는 아이디어

64 세상의 빛
킴벌리 리드
예수님이 나쁜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으실 수 없다면, 왜 예수님의 탄생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토록 행복해 보일 수 있었을까?

66 가정에서 초등회 적용하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68 성탄절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페기 스콘큰
페기의 가족은 성탄절에 먹을 음식이 하나도 없었다.

70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81 물몬경 경전 인물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 편집자

제일회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십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페커, 엘 톨 페리, 라셀 엠 벨스, 델린 에이치 욱스, 엠 라셀 벨라드,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타나, 쿠엔틴 얼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엠 앤더슨

편집인: 크레이그 에이 카든

고문: 세인 엠 바운, 브래들리 디 포스터, 크리스토퍼 콜든 이세, 앤서니 디 퍼킨스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티 워너

가족 및 회원 지원 책임자: 빈센트 에이 본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프 캐넌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라린 포터 건트

출판 보조: 앨리사 젠더노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수잔 배넷, 라이언 카, 데이비드 덕슨,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리트, 민디 라에 프리드만, 하카리 로프터스, 리아 맥클라넬, 마이클 알 모리스, 리처드 엠 롭니, 폴 벤덴버그, 줄리아 우드버리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킵트 크누센

미술 책임자: 태드 알 피터슨

디자인 팀: 자넷 앤드류, 페이 피 앤드라스, 시 킴볼 보트, 토마스 차일드, 케리 린 시 해린, 클린 킵클리, 에릭 피 존슨, 스캇 엠 무이, 브래드 데이

지적 재산 코디네이터: 콜레트 네베커 오운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슨

제작 팀: 콘니 바슬프 브릿지,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넷,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캐슬린 하워드, 드니스 커비, 지니 제이 낄슨, 가일 터데 러퍼티

사건 인쇄: 제프 알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워크

배부 책임자: 예반 왈슨

통 관: 제553호, 제49권, 제12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2년 12월 1일(월간지)

발행인: 장동환

편집인: 박승호

번역 책임자: 조현석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경선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www.ldschurch.or.kr에 접속하여 좌측 리아호나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메일: koreadc@hanmail.net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신청서는 www.ldschurch.or.kr '교회 출판물 및 잡지 신청'에서 다운로드 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전화 080-232-1441)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장 가격은 1,0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liahona.lds.org로 보내 주시거나 또는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서모어, 체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타히티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2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편집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December 2012 Vol. 36 No. 12,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e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인터넷 기사 더 읽기



이번 호 주제

숫자는 각 기사가 실린 첫 장을 나타냅니다.

- 가족, 10, 24, 28, 31, 38, 39, 44, 52, 54, 60
- 감사, 16, 54
- 개종, 24, 32
- 교회 역사, 20
- 기도, 68
- 단합, 58
- 데이트, 50
- 모범, 10
- 물문경, 8
- 방문 교육, 7
- 봉사, 4, 31, 36, 48, 54, 57
- 부활, 56, 64
- 사랑, 39, 64
- 선교 사업, 40, 57, 80
- 선지자, 8, 20
- 성전, 24, 28, 46
- 성탄절, 4, 20, 38, 39, 40, 43, 44, 48, 49, 54, 57, 60, 66, 68
- 속죄, 38, 39
- 순종, 32, 59
- 십일조, 24
- 아론 신권, 58
- 역경, 16

Liahona.lds.org

성인

“선지자들이 성탄절을 보내는 방법”(20쪽)을 재미있게 읽은 다음 christmas.lds.org에 가서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의 “코트: 사랑의 이야기”를 본다.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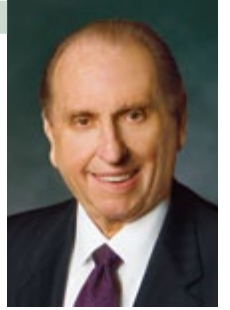
케빈과 재클린(28쪽 참조)은 엘살바도르에 사는 오누이며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성전이 헌납되기 전에 열린 문화 축하 행사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았다. 이들의 삶을 변화시킨 이 경험을 동영상으로 보려면 lds.org/go/temple12에 접속해 본다.

50쪽에는 본부 청남 회장단인 김슨 형제가 데이트에 대해 답한 몇 가지 질문이 나온다. youth.lds.org의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서 데이트에 대해 더 배울 수 있다.

여러분의 언어

리아호나와 그 밖의 교회 자료를 languages.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 예수 그리스도, 37, 49, 56, 59, 64, 66, 73
- 전통, 10
- 조셉 스미스, 8, 73, 81
- 축복, 16, 32
- 친절, 4, 36, 37, 44, 48, 60, 68, 70
- 행복, 32
- 활동 촉진, 28
- 회복, 8
- 희생, 37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성탄절 정신을 다시 발견하도록

오래 전, 젊은 장로였던 시절에 저는 사람들과 함께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한 병원에 가서 아픈 어린이들을 축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도착해 보니 성탄절 트리가 밝고 다정하게 빛나고 있었고, 쪽 뺨은 트리 가지 밑에 정성스레 포장된 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병원 복도를 지나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팔이나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아마도 금세 낫지 못할 수도 있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웃으며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극심한 질병을 앓는 왜소한 소년이 제게 “이름이 뭐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제 이름을 말하자 그 아이는 “저 좀 축복해 주실래요?”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이를 축복한 뒤 병상을 떠나려 하자 그 소년은 “정말 고마워요.”라고 말했습니다.

몇 걸음 내디뎠을 때 저는 그 아이가 “몬슨 형제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이는 함박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 소년에게는 성탄절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성탄절의 정신은 이 시기뿐 아니라 한 해 내내 우리 마음과 삶에 늘 깃들었으면 하고 우리 모두 바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정신을 지니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이 시기에 그분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누가복음 2:11)

우리 시대에는 선물을 주는 것이 성탄절을 기억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자문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이 소중한 시기에 내가 그분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기를 바라실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각자에게 그분과 그분의 아들과 순종이란 선물을 바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또한 그분의 소중한 아들이 물몬경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놓으며, 우리가 이기적이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다툼을 일삼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신다고 생각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다투는 정신을 가진 자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요 분쟁의 아비인 악마에게 속한 자임이라,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하여 서로 노여움으로 다투게 하는도다.

보라, 노여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하여 서로 대적하게 하는 이것은 나의 교리가 아니요, 그러한 일을 없이 하는 이것이 나의 교리이니라.”(제3니파이 11:29~30)

때가 찬 이 놀라운 경륜의 시대에 사랑을 나누고 우리 자신을 내놓을 기회는 참으로 무한합니다만, 그 기회는 쉽게 소멸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기뻐해야 할 마음, 들려 주어야 할 친절할 말, 해야 할 행동, 그리고 구해야 할 영혼이 있습니다.

성탄절의 정신에 관해 깊이 있는 통찰을 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성탄절의 정신

가난한 집에 들어가 창백한 아이들의 눈을
기쁨에 찬 놀라움으로 휘둥그레지게 하고
꼭 움켜쥔 구두쇠의 손을 풀고 그 영혼에 밝은
빛을 던진다.

노인들이 젊음을 되찾고 젊은 시절처럼 웃게
하며

어린 시절의 낭만을 일깨워 달콤한 꿈으로
잠자리를 밝혀 준다.

도우려는 이들이 가득 찬 광주리를 들고
어두운 계단을 오르게 하며, 세상의 선함에
놀란 가슴들을 뒤에 남긴다.

거칠고 낭비를 일삼는 탕자의 행동을 잠시
멈추게 하고, 간절히 사랑했던 이에게 작은
선물을 보내 슬픔으로 파인 주름살을 펴게
할 기쁜 눈물을 흘리게 한다.

어두운 감방에 들어가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다가올 좋은 날들을 기다리게 하며

고통이 가득한, 적막하고 새하얀 집에 살며시
다가가 말할 기력조차 없는 입술을 소리
없는 감사함으로 떨리게 한다.
술한 방법으로 나는 울적한 세상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며 사소하고 불행한
것들을 잠시 잊어버리게 한다.
나는 성탄절의 정신.¹

우리 모두가 성탄절의 정신, 곧 그리스도의
영을 새롭게 발견하기를 기원합니다. ■

주
1. E. C. Baird, "Christmas Spirit," in James S. Hewitt, ed.,
Illustrations Unlimited(1988), 81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가 족들에게 몬슨 회장님의
메시지를 나눌 때, 주님은
이 시기에 우리가 그분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기를 바라실지 생각해
보라는 질문을 강조한다.
가족들에게 어떻게 "성탄절의
정신, 곧 그리스도의 영"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겠는지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도록
권한다.(어린이들은 그림으로
표현하게 한다.)

완벽한 성탄절 전야

제리 에스 제이콥스

자라면서 내게 매년 중요한 행사 중 하나는 성탄절 전야가 되었다. 가족들과 피자를 만들고, 캐럴을 부르러 다니고, 성탄절 영적 모임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불안정한 네 파트의 화음으로 찬송가를 불렀고 영성한 조합으로 이루어진 악기를 가지고 캐럴을 크게 연주했다. 아버지는 언제나 그날 저녁을 성탄절 말씀으로 마무리하셨고, 우리는 행복해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성탄절 전야보다 더 좋은 시간은 없었다.

내가 좀 더 크고 나서는 어머니가 이웃에 사는 어린 켈리를 돌보기 시작하셨다. 켈리는 엄마인 패티 아주머니가 일하시는 동안 방과 후에 매일 우리 집으로 왔다. 켈리는 시끄럽고 도움이 필요한 강아지처럼 나를 졸졸 따라다녔다. 패티 아주머니가 딸을 데리고 가면 우리 집과 가족은 평화를 되찾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어느 해 12월, 나는 어머니가 패티 아주머니와 켈리를 성탄절 전야에 초대하신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나만의 성탄절 전야에! 어머니는 웃으시며 “괜찮을 거야.” 하고 다독이셨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뻔했다. 두 사람은 피자를 다 먹어치우고, 켈리는 우리 노래를 비웃을 게 분명했다. 나는 최악의 성탄절 전야가 되겠구나 하고 체념해 버렸다.

저녁이 되자 패티 아주머니와 켈리가 왔다. 우리는 대화하고 웃으며 노래도 했다. 어머니가 옳았다. 그날은 완벽했다. 자정 무렵, 그들은 감사를 표하면서 아쉬워하며 작별 인사를 했다. 잠자리에 들었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다. 값진 성탄절 선물은 나눈다고 해서 즐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선물은 오히려 나눌 때 더 달콤해지고 커진다.

어린이

다섯 가지 성탄절 선물

문 손 회장님은 주께서 우리가 그분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선물을 하기를 바라실지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다섯 아이들을 그림에서 찾아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들의 행동은 어떻게 예수님께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자료를 공부하고, 상황이 적절하다면 방문하는 자매들과 토론한다. 여기에 있는 질문들을 토대로 자매들을 강화하고 또한 상호부조회의 가르침을 여러분 생활에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방문 교육은 구원 사업입니다

방문 교육은 여성들에게 서로를 돌보고 강화하며 가르칠 기회를 준다. 이것은 구원 사업의 하나이다. 방문 교육을 통해, 자매들은 구주를 대신해 다른 자매들을 돌보고 그들이 영생을 축복받을 준비를 하도록 돕는다.

스펜서 더블유 김볼(1895~1985) 회장은 “우리는 주님께서 계시로 말씀하신 것처럼 ‘경고하고, 해설하며, 권면하며, 가르치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권유해야(교리와 성약 20:59) 합니다.”라고 말씀했다. 김볼 회장은 더 나아가 이렇게 덧붙였다. “여러분의 간증은 중요한 축매 역할을 합니다.”¹

방문 교사로써 복음 진리에 대한 지식을 넓혀 갈 때 우리의 간증은 침례와 확인 받을 준비를 하는 여성들을 강화하고 지지하게 된다. 우리는 새로운 회원들이 복음 안에서 굳건히 뿌리를 내리도록 돕는다. 우리의 방문과 사랑은 “길에서 벗어나 복음에 냉담해진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서 우리 안으로 다시 데려오[는 데]”² 보탬이 된다. 우리는 자매들이 성전 참석을 통해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오도록 격려한다.

김볼 회장은 방문 교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많은 활동 회원들은 여러분이 그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새로운 시야와 통찰을 준 덕분에 활동적인 회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장막을 걷어서 그들의 시야를 넓혀 주었습니다. ……



여러분은 이 자매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들의 남편과 가정까지도 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³

경전에서

교리와 성약 20:59; 84:106;138:56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 상호부조회는 내가 영생의 축복을 받도록 어떻게 나를 준비시키는가?
2. 내가 돌보는 자매들의 신앙을 강화하도록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신앙, 가족, 구제

상호부조회 역사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상호부조회를 조직했을 때 그는 여성들이 가난한 이들을 돌볼 뿐 아니라 영혼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회의 여성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가르쳤다.⁴ 조셉 스미스가 가르친 원리에 입각해 상호부조회 자매로서 우리는 협력해서 여성들과 그들의 가족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할 수 있다.

브리검 영(1801~1877) 회장은 “서로에 대해 동정심을 가집시다.”라고 말씀했다. “강인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 힘을 갖도록 친절하게 보살핍시다. 무엇이 옳은지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때까지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⁵

주

1. 스펜서 더블유 김볼,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2011), 116쪽.
2. 엘리자 알 스노우, 내 왕국에 속한 딸들, 83쪽.
3. 스펜서 더블유 김볼, 내 왕국에 속한 딸들, 117쪽.
4. 조셉 스미스, 내 왕국에 속한 딸들, 171~172쪽 참조.
5. 브리검 영, 내 왕국에 속한 딸들, 107쪽.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었다

구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도들이 죽임을 당한 후, 사람들은 복음의 일부 교리와 의식을 변경했다. 많은 선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복음을 이해하고 가르치려 했으나 충분한 복음이 더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 결과, 살아남은 기독교인 사이에서 여러 단계에 걸쳐 배도가 나타났다. 그들이 많은 진리를 알기는 했으나 그 누구에게도 그리스도의 충만한 교리, 의식, 신권은 없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진리가 점차 소멸될 것임을 아셨기에 성경에 필적하는 고대 경전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보전하셨다. 1800년대 초, 모로나이라는 하늘의 천사가 조셉 스미스에게 이 성스러운 경전이 수 세기 동안 묻혀 있는 곳을 알려 주었다. 금판에 새겨진 이 기록에는 주님이 고대 미 대륙 거주민에게 하신 일을 알리는 선지자들의 기록이 담겨 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이 판에 새겨진 기록을 번역했다. 이 기록이 바로 몰몬경: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성약이다.

몰몬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교리를 알게 되었다. 그의 교사는 영이었으며, 교과서는

몰몬경이었다. 조셉 스미스는 질문이 생기면 기도로 하나님께 다가갔으며, 하나님은 그에게 답을 알려 주셨다. 이 과정을 통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젊은이였던 조셉 스미스는 회복의 선지자라는 부름에 필수적인 중요한 진리들을 배웠다. ■

더 많은 정보를 보려면 *복음 원리*(2009), 87~93쪽, 95~100쪽; *신앙에 충실함*(2004), 63~67쪽, 84~88쪽, 101~105쪽; 게리 제이 콜먼,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회복의 중심입니다", *성도의 벗*, 1993년 1월호, 43쪽을 참조한다.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믿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다.



왼쪽부터, 신앙해 여중외와 대화한 사람 존 매노는;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사진, 그리고 울스, 복사 금사; 몰몬경을 번역하는 조셉 스미스, 엘 피는 © 1986; 주님의 선지자, 데이비드 린틀리, 복사 금사; 부분 필체: 열기(세)의 소년의 회복, 리스 레만 스턴을 복사 금사; 1830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조직되다, 조셉 트러키, 복사 금사; 너희의 어린 자들을 모라, 데이비드 린틀리 © 1983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간증

1. “나는 실제로 빛을 보았고 그 빛 가운데서 두 분을 보았으며, 그분들은 실제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비록 내가 시현을 보았다고 말함으로써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이었다. …… 내가 그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었기에, 나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으며 감히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않았다.”¹



2.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 나는 세상에서 이미 사라진 지식으로 만들어진 상형문자로부터 몰몬경을 번역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에서 교육받지 못한 한 젊은이가 새로운 계시를 갖고 홀로 선 채 18세기의 세상적인 지혜와 복합적인 무지에 대항해 싸워야 했습니다.”²



3. “나는 형제들에게 몰몬경은 지상에 있는 어떤 책보다도 가장 정확하며, 우리 종교의 종석이고, 그 어떤 책보다 이 책의 교훈대로 생활한다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³



4. “저는 마지막 왕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멜기세덱 신권의 인봉 권능 하에 창세 이래로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전해진 모든 것이 총명한 경륜의 시대가 있습니다.”⁴(교리와 성약 27:12~13 참조)



5.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 항상 직접적인 계시 위에 세워졌듯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역시 직접적인 계시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축복을 통해, 저는 지금까지 그분의 손에서 시온의 대업을 전진시키는 도구였습니다.”⁵



6. “[몰몬경은] 우리의 구주께서 부활하신 후 이 대륙[미 대륙]에 나타나셨으며, 그분의 복음을 충만하고 풍요로우며 권능과 축복이 담긴 상태로 이곳에 심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⁶

주

1. 조셉 스미스—역사 1:25,
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60쪽,
3.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64쪽,
4.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511쪽,
5.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195쪽,
6.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64쪽.

여러분은 가족이 일 년 중 특별한 때를 고대하도록 가족 전통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전통은 여러분을 위대하고도 영원한 가족으로 결합시켜 줄 것입니다.





빛과 간증을 전통으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참으로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이라는 위대한 나라가 탄생하지 않았다면 이 교회는 절대 지금과 같은 교회가 되지 못했으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해방과 종교적 자유를 추구하는 전 세계인의 마음을 끌어당길 새로운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땅은 강한 지도자들로 축복받았습니다. 그들은 각자 양심에 따라 예배할 수 있는 정부를 건립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미국을 건국한 조상들은 강한 정부를 수립하는 토대가 종교적인 믿음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세상 사람들은 정부 정책, 법률, 규정을 구성하는 데 종교적 믿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건국을 이룬 이들이 종교는 그 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믿었다는 사실을 많은 미국인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건국자들은 종교와 도덕을 하나의 정신 수련으로 여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훌륭한 정부와 인류의 행복을 위한 필수 요소로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런 입장은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고별 연설에서 표명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적 변명을 이끄는 모든 경향과 습관 중에서도 종교와 도덕은 꼭 필요한 버팀목입니다. …… 종교가 없어도 도덕이 지켜질 수 있다는 생각을 경계합시다. …… 종교 원리를 배제하고도 국민의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이성과 경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미덕 또는 도덕성이 민주 정부에 필요한 원천이라는 점은 엄연한 사실입니다.”¹

미국은 물론경에서 예언된 약속의 땅입니다. 미국은 영감받은 사람들이



제가 가족의 영적 안전을 위해 그러한 비상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배우려면 어디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영원한 가족을 이룰 발판으로, 저는 교회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는 데 필요한 조건을 형성하도록 신성한 인도를 받은 곳입니다. 선지자와 계시된 빛의 부재로 지상이 암흑으로 뒤덮인 대배도를 몰아낸 것은 미국의 탄생이었습니다. 미국이 건국된 지 불과 몇십 년도 되지 않아 일어난 그 아름다운 아침의 첫번째 시현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첫번째 시현은 계시된 진리가 홍수처럼 밀려오게 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신화의 본질에 관한 지식이 회복되었습니다. 새로 번역된 경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증거나 성약이었습니다. 신권 회복은 인류에게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신권 의식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상에 다시 설립하는 권능과 권세를 다시금 부여했습니다.

영적 안전을 위한 계획

회복된 교회가 주는 축복 중 하나는 살아 있는 선지자입니다. 해롤드 비 리(1899~1973) 회장님은 우선순위를 매우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조직적으로 행하고 있는 많은 일들은 개인을 성장시키는 데 [발판]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위한 [발판] 세우는 일에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²

리 회장님은 남성과 여성,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서 교회의 역할을 경시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개인과 가족, 가정이라는 점을 힘 있게 가르친 것입니다. 교회는 이들을 지원하는 기능을 합니다.³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가 영원한 가족을 이룩하는 발판입니다.

저는 윙 씨 가문의 한 파에 속합니다. 윙 씨 문중은 지금도 뉴잉글랜드에 지어진 가장 오래된 가옥을 소유하고 있으며, 같은 집안사람들이 그곳에 머물러 왔습니다. 그 가옥은 올드 포트 하우스라 불립니다. 그것은 스티븐 윙과 그의 가족이 1635년경에 미국에 도착한 후로 그들의 집이었습니다.

그 집의 중심 부분은 보호용으로 건축한 것이었습니다. 벽은 두께가 60센티미터로, 전형적인 뉴잉글랜드 요새를 건축하기 위해 그 땅으로 운반해 온 참나무 목재로 만들었습니다. 이 집에는 두 개의 분리된 벽이 있습니다. 두 벽 사이 공간은 화살과 탄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암으로 채워졌습니다. 이 요새는 그 집의 중심이었습니다. 윙 가족은 식구들이 늘어나자 원래는 요새였던 그 집의 측면을 증축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그들의 보호막이자 안전한 피난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영적인 안전을 위해 가족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핵심 가치를 위협하는 세상의 도전에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를 가르칠 수 있는, 세상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건축물을 지을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낙관을 선호하므로,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항상 바랍니다. 저는 또한 현실주의자이기도 해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를 대비해 비상 계획도 세웁니다. 영적 안전을 위해 세운 제 비상 계획은 여러 매체를 통해 밀려드는 모든 콘텐츠, 즉 선과 악 둘 다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족의 영적 안전을 위해 그러한 비상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배우려면 어디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영원한 가족을 이룰 발판으로, 저는 교회를 바라봅니다.

교회를 영원한 가족을 위한 발판으로 비유한 리 회장님의 말씀을 제가 감사하게 여기는 데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 말씀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똑같이 중요한 것으로, 저는 교회가 어떤 곳이 아닌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발판이 된다는 것을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교회 지도자인 자신의 역할에 관해 전한 말씀만큼 잘 나타내는 것은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올바른 원리를 가르쳐 그들이 스스로를 다스리게 합니다.”⁴ 영원한 원리는 교회가 제공하는 발판입니다. 이런 영원한 원리는 하나님 왕국의 교리에 속하며, 그분이 마련하신 영원한 행복의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회원으로서 의의 원리를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구원의 의식을 받기 위해 모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발판이 견고하게 고정되어 우리가 영원한 가족을 이루게 합니다.

교회는 부모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십시오. 그보다는 부모가 해야 할 일을 안내합니다. 교회는 영원한 틀을 제공합니다. 영원한 가족을 세우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영원한 틀을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의 노력으로 가장 사랑하는 이들의 안전과 보호를 확보할 수 있다는 약속을 보장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영적으로 강한, 즉

구조적으로 강한 올드 포트 하우스보다 더 강한 가정을 확립할 발판으로 교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전통의 중요성

저는 가족의 전통이란 것은 올드 포트 하우스를 지으려고 그 땅으로 운반해 온 참나무 목재와 같다고 믿습니다. 휴일, 생일, 일요일, 저녁 식사 등과 관련한 전통과 같은 가족의 전통을 존중하고 새로운 전통을 발전시키는 일을 평생토록 우선시하십시오. 그것을 존중하고, 기록하며, 반드시 따르십시오. 연구에 따르면, 젊은이들이 폭력단에 가입하는 이유는 자신보다 더 큰 어떤 것에 속하고자 하는 전통과 관습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자리는 가족이 차지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은 가족이 일 년 중 특별한 때를 고대하도록 가족 전통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전통은 여러분을 위대하고도 영원한 가족으로 결합시켜 줄 것입니다.

이 해결책은 간단하지도, 쉽지도 않다는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듯 가족의 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의 전통은 기본적인 지속적인 뒷받침을 해 줄 수 있으나 그 주변에 형성되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가족의 전통은 모든 가족 구성원을 위한 역할을 만들고, 가족의 전통을 수립하려는 단합된 노력이 있을 때에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가족 구성원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족에 관한 한, 일정 양의 시간을 들여도 되지 않는 질적인 시간이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을 고려할 때, 매일 직장 일에 몇 시간을 써야 하는지를 심사숙고하십시오. 하루에 14시간을 일해야 해서 자녀가 잠자리에 든 후에야 집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직장입니까? 그런 직장은 거들떠보지도 말라는 것은

가족의 전통은 모든 가족 구성원을 위한 역할을 만들고, 가족의 전통을 수립하려는 단합된 노력이 있을 때에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선언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그분이 인류 역사에서 중심이 된다는 우리의 믿음을 사람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아닙니다만, 여러분이 그런 직장을 택한다면 가족과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교회라는 발판은 여러분의 영원한 우선순위를 일깨워 줄 것입니다.

저는 직업으로 소매업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매주 엿새 동안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가게를 열었습니다. 저는 대개 최소 10시간을 일했으며, 때로는 12시간에서 15시간까지도 일했습니다. 저는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내기 위해 신경을 써야 했으며, 교회를 발판으로 여겼기에 제 영원한 우선순위를 계속 상기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모든 자녀에게 우리 가게에서 시간제로 일하게 했습니다. 큰딸은 가게에 와서 그때그때의 매출액을 계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현 상태의 판매 기록을 유지하며 매년 매출액을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에게는 여름 동안 외상 매입금을 다루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막내딸에게는 계산대 업무를 가르쳐서 시간제 계산원으로 일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낮 동안에 서로 보고, 일주일 중 며칠은 함께 점심을 먹고, 일대일로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함께한 최고의 시간은 매일 일터를 오가는 통근 시간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위한 발판

저는 또한 교회가 직장 생활을 위한 발판도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구주와 그분의 교회를 대표합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큼 선한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지 앨버트 스미스(1870~1951) 회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작년에 저는 이 [솔트레이크시티]에 사는, 교회 회원이 아닌 몇 분과 만나 복음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이곳에서 20년을 사셨는데, 흠잡을 데 없는 훌륭한 시민이자 뛰어난 사업가였고, 교회 회원들에게도 우호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 우리가 다른 교회에 다니는 이웃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좋은 사람이란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서 별다른 차이점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칭찬으로 들리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발전해야 할 만큼 발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교회에 속하지 않는 이웃이 수년간 우리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살 때 누리게 되는 유익을 우리 삶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스라엘은 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⁵





교회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위해
행했고, 행하고
있으며, 또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가 그저 다른
어떤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교회임을
기억하십시오.

성전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한 교회 회원은 자신이 속하는 직업군이 무엇이든 간에 항상 두각을 나타내야 합니다. 유별난 사람이 되십시오. 교회 표준에 따라 생활하면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걱정은 마십시오. 약속하건대, 성전 추천서에 합당한 표준대로 생활한다면 축복을 받을 것이며, 어떤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절대 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구주의 빛을 반영하는 삶

저는 매일 뉴스 기사를 읽고 시청하면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내는 곤경에 충격을 받습니다. 시대와 주변 상황이 바뀌고 복잡해짐에 따라 긍정적인 변화를 선도할 사람은 줄어드는 듯합니다. 저는 현재의 지도자와 미래의 지도자인 여러분에게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음을 인식하도록 요청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어마어마한 도전에 맞설 능력과 용기를 갖춘 지도자가 시급합니다.

강한 유대교 및 기독교 전통이라는 도덕적 기반은 미국과 그 밖의 국가에서 침식당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런 전통은 정의와 동정심,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기초를 둡니다. 그것은 모든 선하고 예의 바른 시민들 사이에서 법률과 규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에 바탕을 둔 전통이었습니다.

이런 믿음과 가치관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충실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구주를 대표하겠다고 그분과 성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반영하는 생활을 함으로써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유대교 및 기독교의 전통과 유산을 기억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선언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그분이 인류 역사에서

중심이 된다는 우리의 믿음을 사람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삶과 가르침은 성경과 다른 거룩한 경전에서 중심이 됩니다. 구약전서에는 그리스도의 지상 성역을 위한 무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약전서에는 그분의 지상 성역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물론경은 그분의 지상 성역에 대한 두 번째 증거입니다. 구주께서는 지상에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그분과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도록, 인류를 위한 하나의 토대로서의 그분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후 우리의 구주와 구속주가 되기 위해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인류 역사의 중심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항상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을 믿고 우리의 구주요,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교회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행했고, 행하고 있으며, 또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가 그저 다른 어떤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교회임을 기억하십시오. ■

주

1. *Washington's Farewell Address*, ed. Thomas Arkle Clark (1908), 14.
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해롤드 비 리*(2000), 148쪽.
3.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해롤드 비 리*, 148-149쪽 참조.
4.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284쪽.
5.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지 앨버트 스미스*(2011), 7쪽.



데이비드 에스 백스터 장로
칠십인 정원회

역경을 뒤로하고

주님의 도움으로,
역경을 뒤로하고
어둠에서 찬란한
빛 가운데로
나아올 때가 올
것입니다.

회 복에 관한 찬송가 중 팔리 피 프랫이
작사한 노래는 배도의 어두운 장막이
건히고 회복된 진리의 영광스러운 빛이
나타나는 것을 묘사합니다.

동트니 날이 밝는다
보라 시온기 날린다!
하루의 시작 장엄하게
아침 해 솟아오르네

거룩한 진리 빛 앞에
과오의 구름 사라지네
온 세계에 널리 퍼져
이제 곧 빛 발하리라!

흥미롭게도, 사도 바울 역시 어떻게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고린도후서 4:8~9)
수 있는지를 빛에서 유추한 내용을 들어
설명했습니다.

그는 영적인 암흑의 끝에서 탈출한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린도후서 4:6)

우리 중 대부분은 사는 동안 역경이라는
차가운 바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폭풍우가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며 홍수가 덮칩니다. 끝이
전혀 보이지 않으며 미래가 온통 불확실과 의심,
시련, 고난으로 가득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따금 겪는 심한 뇌우에 자신감을
잃게 되고, 자긍심마저 흔들어 놓는 끔찍한
태풍과 요란한 폭풍우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불현듯 너무나 덧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생활 환경이 크게 바뀌면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평정심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해고가 장기간의 실업으로 이어지고, 빠듯한 재정 상태로 선택의 범위가 좁아지며, 담보 대출 대란 때문에 금전적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바쁘게, 또 생산적으로 일해 오다가 예기된 퇴직을 해도 상실감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 혹은 끔찍한 장애로 “옴짝달싹 못하는” 지경이 되어 무기력하고 희망을 죄다 잃어버린 채 불확실함만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쉽사리 두려움을 느끼며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다 겪어 봐서 압니다. 큰 뇌종양 두 개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동안 저는 수술 때문에 생기는 정서적,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함과 낙담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한때는 무척 강인했다고 생각했지만, 터는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약도 소용없었고 병이 한두 차례 재발하면서 또다시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해지기로 결심하며

그때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과 신뢰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저를 이해하고 지지해 주었으며, 저는 그들의 권고를 듣고 격려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막내아들에게 제 우울한 기분을 이야기하자 아들은 “아빠, 저는 언제나 행복이란 자신이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아들이 옳았습니다.

저는 제가 아직도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에 더욱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같은 [시련]은 기도와 금식 없이는 물러가지 않으리라”(마태복음 17:21,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음-옮긴이)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힘이 솟았고 새로운 활력과 구주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바울처럼 저는 환난, 곤고, 위험이 저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 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게 되었습니다.(로마서 8:35 참조)

다행히도 희망적이고 확실한 사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힘과 격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이

우리의 신앙이
겨자씨 한 알보다
작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와 함께
움직일 것입니다.
또 하늘의 도움을
구하면, 전혀 예기치
않았던 방법일지라도
그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가벼워질 수는
있습니다. 어두운 심연에서 벗어나 더 강하고
결연한 의지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의 도가니에서 단련될 때 미래의 삶에서
오는 충격에 맞서고 견딜 성품을 함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을 고양하고 그들과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인 끈기의 모범은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식구들에게는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더 적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역경이 곁을 쉽사리 떠나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언제든 그것을 떠나겠다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끔찍한 박해를 겪던 엘마와 그의
백성에게 주신 것과 같은 주님의 약속을 우리도
받았습니다.

“너희 머리를 들고 안심하라. 이는 너희가
내게 맺은 성약을 내가 알고 있음이요, 내가
나의 백성과 성약하고 그들을 속박에서 건져 낼
것임이니라.

그리고 내가 또한 너희 어깨에 놓인 짐을
가볍게 하리니 …… 참으로 너희가 너희 등에
그것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모사이야서
24:13~14)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요한복음 14:18)

하늘의 도움을 구하며

하늘의 도움은 당장 눈에 띄지는 않을
것입니다. 길을 가로막는 다른 짐이 가벼워지거나
문에서 사라지는 것을 즉각 보거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눈은 너희 위에 있느니라. 나는 너희 가운데
있으나, 너희는 나를 볼 수 없느니라”(교리와 성약
38:7)

물론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에게 각별한
인내심을 보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모든 일이
다 해결되려면 종종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겨자씨 한 알보다 작게 보일지라도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와 함께
움직일 것입니다. 또 하늘의 도움을 구하면, 전혀
예기치 않았던 방법일지라도 그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기보다는
가진 것을 감사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우리는 산불, 홍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탓으로 세상의 소유를 죄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한결같이 똑같은 감정을 표현하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모든 경우에 그들은 실제로
“적어도 가장 중요한 게 아직 남아 있잖아.”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간증은 참으로 용기를 줍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립보서 4:11~13)

이 기록과 같이 말입니다. “삶에 대해
불공평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올바르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²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주님의 도움으로
역경을 뒤로하고, 어둠에서 찬란한 빛 가운데
나아올 때가 올 것입니다. ■

주

1. “동트니 날이 밝는다”, 찬송가, 4장.

2.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2004), 52쪽.

절대 혼자가 아니다

안드리아 다이네 켈라-솔레타

지난 3년간 나에게서는 시험받을 기회가 있었다. 나는 어떤 일을 겪더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홀로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열여섯 번째 생일이 지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나는 습진이 생겼다. 아침마다 거울에 비친 온몸을 뒤덮은 발진(두드러기)은 보기 거북했다. 나는 이것을 시험받는 기회라 여기기로 했다. 나 자신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대신 청녀반 교사들께 배운 대로 하려고 했다. 시련 속에서도 매일 내가 받은 축복을 세어 보는 일 말이다. 비록 지금은 피부를 깨끗이 할 수 없어도 가족과 친구들, 내게 음악적 재능이 있음에 감사드렸다. 두 다리, 두 손과 발,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에 감사해했다. 나는 참된 아름다움은 내면에 있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하지만 습진은 점점 더 심해졌다. 이제는 예전처럼 다정다감하게 행동하거나 웃을 수조차 없게 되었다. 여러 의사와 상담했고 성탄절까지는 “깨끗해질 것”이라는 장담도 받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나는 매일 내 피부병 때문에 드는 부끄러움을 극복하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

모두들 이 시련에 개의치 말고 평상시처럼 행동하고 피부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하라고 말했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았다. 어머니는 경전 이야기를 온화하게 되풀이하시면서 내게 위안과 격려를 주시고자 했다.

교리와 성약 24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고난 중에 인내하라. 이는 네가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임이라, 그러나 이를 견디라. 이는, 보라, 내가 참으로 네 생애의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이 구절은 내가 그대로 따라야 할 말씀이었다. 나는 그 구절을 서포와 공책에도 적었고 방에도 붙여 두었다. 이 구절은 이제 시련 속에서도 온 힘을 다하도록 힘을 주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구가 되었다.

이 시련은 견디기 어려웠지만, 이제 나는 미래의 시련에 맞설 준비가 더 잘

되어 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준비시키셔서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게 하셨다. 이제 나는 어떤 일을 겪더라도 홀로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



선지자들이 성탄절을 보내는 방법



후 기의 선지자 열여섯 명의 삶은 성탄절 정신을 잘 보여 주며 20세기 전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일어난,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상기시킨다. 성탄절에 특히 우리가 그러한 모범을 따른다면, 절대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사랑의 선물

선지자들은 늘 성탄절이면 가난한 이들에게 사랑과 봉사를 선물했다. 1931년, 대공황 당시 해롤드 비 리 회장은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한 커다란 스테이크에서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리 회장은 스테이크 회원들에게 필요한 것을 파악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 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사한 결과, 그는 스테이크 회원의 절반 이상인 5,000여 명이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지해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기에는 10세 미만 어린이 천여 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회원들을 동원해 장난감을

모았고 작업실을 마련하여 낡은 장난감을 수리하고 칠을 해서 깨끗하게 하고, 새 장난감도 만들었다. 그래서 어떤 아이도 성탄절에 장난감을 선물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그는 스테이크의 모든 가족이 성탄절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음식 기부 행사를 열기로 결정했다.¹ 이후 사도가 되었을 때 리 장로는 봉사, 희생, 일이라는 유사한 원리에 바탕을 두고 교회의 복지 프로그램을 조직하라는 임무를 맡게 된다.

어린 시절,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성탄절을 축하하고 있었을 때 한 친구에게서 “칠면조 맛은 무슨 맛이니?”라는 깜짝 놀랄 만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몬슨 회장은 닭고기와 같은 맛이라고 대답했는데, 이 가엾은 친구가 칠면조는 커녕 닭고기도 맛보지 못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다. 게다가 친구의 집에는 성탄절 저녁 식사거리가 하나도 없었다. 몬슨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해결책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저는 칠면조나 닭고기도 없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애완용 토끼 두 마리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즉시 제 친구의 손을 붙잡고는 토끼 우리로 달려가서 토끼들을 상자에 담아 친구에게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토끼들을 가져가. 닭고기 맛과 똑같아서 먹을 만 할 거야.’…… 빈 토끼장 문을 닫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따스하며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제 가슴을 채웠습니다. 정말 잊지 못할 성탄절이었습니다.”²

가족이 함께 즐기기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이 기억하는 아주 감미로웠던 어느 성탄절은 1923년에 있었다. 그해에 그는 영국에서 2년 반 동안 봉사한 후 귀환하여 미국 아이다호 주 휘트니에 있는 가족 농장에서 성탄절 전야를 가족과 함께 보냈다. 부모님과 열 명의 남매들과 다시 함께하게 되어 성탄절의 즐거움과 열정이 가득한 시간이었다. 부모님은 벤슨 회장에게 다른 아이들이 잠든 후에도 성탄절 준비를 도울 수 있게 늦게까지 깨어 있어도 좋다는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 곁에서 함께 일하면서 그는 조용히 선교 사업에서 겪은 일들을 부모님께 들려드렸다. 벤슨 회장은 어린 시절을 보낸 그 집에서 이 “특별한 밤”을 지내며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³

선지자들의 이러한 삶은 우리가 성탄절에 가족과 더 가까워지도록 힘을 북돋아 준다.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젊은 아버지였을 때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자녀들 선물을 해 줄 수 없었던 성탄절을 회고했다. 성탄절 바로 전에 그는 집을 나와 거리를 걸으면서 상점 진열대에 놓인 멋진 물건들을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거의 절망하다시피 한 그는 조용한 곳을 찾아 가슴 저미는 슬픔을 덜기 위해 “마치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하지만 눈물을 닦고 집에 돌아와서 자녀와 온종일 놀아 주며 “오직 자녀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해했다.”⁴ 자녀에게 물질적인 성탄절 선물을 주지는 못했지만, 그 어떤 아버지라도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선물을 자녀에게 주었던 것이다. 그가 준 것은 바로 그의

사랑과 시간이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미주리 주 리버티 감옥에서 1838년의 성탄절을 맞았다. 그와 몇몇 동료들은 춥고 더러운 비좁은 지하 감방에 갇혀 있었다. 부득이 쉼이 있어도 난로는 덮개가 없어서 방안이 연기로 자욱했고, 천장도 너무 낮아 일어서지도 못할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 성탄절에도 행복한 순간은 있었다. 선지자의 아내 에머가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서 조셉을 방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들인 조셉 스미스 3세도 함께 왔었다. 가족의 사랑을 느낀 조셉은 지하 감방에서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격려의 말을 썼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알기에 우리는 시련 속에서 기뻐하노라.”⁵

1937년, 사랑하는 아내 에델과 사별한 지 얼마 안 되었기에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아내가 없는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다. 에델은 목소리가 아름다운 독신 자매인 제시 에반스에게 자신의 장례식에서 노래를 해 달라고 부탁했었다. 그 일을 계기로 제시 에반스와 조셉 필딩 스미스는 상대방을 더 잘 알게 되었으며, 서로에게 느낀 호감은 사랑으로 발전했다. 그녀는 성탄절 직후에 스미스 회장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1937년 성탄절에 받은 선물들을 생각해 보던 스미스 회장은 “나는 제시를 성탄절 선물로 받았으며 이에 감사한다.”⁶라고 썼다. 그들은 이듬해 4월에 결혼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의 연례 가족 전통 중 하나는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징글벨”이라는 훌륭한 말들이 끄는



봅슬레이를 타는 것이었다. 이 썰매 타기는 그들이 정말 좋아하는 전통 중 하나였다. 맥케이 회장은 이 놀이를 80대가 되어서도 즐겼다. 방한을 위해 맥케이 회장은 길고 두꺼운 너구리 코트를 입고 커다란 장갑을 꼈다. 어린 손자 손녀들은 봅슬레이 썰매를 탔으며, 큰 아이들은 봅슬레이 썰매 뒤에 묶인 “자신들의 썰매를 타고 그 뒤를 뿡뿡 달렸다.” 오랫동안 기억될 이 성탄절 축하 행사는 피아노 주위에 둘러 모여 캐럴을 부르거나 “나의 집에 사랑이 차고 넘치면”을 부르며 끝났다.⁷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

선지자들의 성탄절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의 중심으로 삼을 때 그분을 믿는 신앙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 1876년, 유타 주 세인트조지 성전은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렀다. 지하실, 주요 의식실, 인봉실을 헌납하는 행사가 1877년 1월 1일에 잡혀 있었다.⁸ 헌납을 일주일 남긴 성탄절에 세인트 조지의 많은 성도들은 성전이 제때에 완공되도록 열성을 다해 도왔다.

그 성전의 첫 번째 성전 회장으로 봉사한 윌포드 우드럽 회장은 형제들이 성탄절에 왕궁거리는 톱질 소리와 함께 분주히 일했으며, 자매 40명은 온종일을 성전 카펫을 바느질하며 그날을 보냈다고 일지에 기록했다. 그들은 카펫을

깔고 커튼을 달았다.⁹

비록 제때에 일을 다 마치지는 못했지만, 성탄절에 그들이 바친 헌물은 노력만큼 값어치가 있었다. 그들에게는 그 일이 바로 성탄절 축하 행사였다. 1월 1일, 성도들 2,000명이 운집한 가운데 우드럽 회장은 성전 일부에 대한 헌납 기도를 드렸다. 이는 후기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나무 성전을 포기한 이후 30년 만에 생긴 일이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미국의 많은 도시가 연료를 절약하려고 밤에 불을 켜지 않았다. 솔트레이크시티에서는 솔트레이크 성전의 투광 조명을 켜다. 성전은 여러 해 동안 캄캄한 도시에서 불이 꺼진 채 서 있었다. 유럽에서 정전이 선언되자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은 성전의 투광 조명을 다시 켜게 했다.

1945년 성탄절에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은 영감을 주고 의미가 있는 성탄절 카드 제작을 계획했다. 앞면에는 검푸른 바탕에 아름다운 불빛을 발하는 솔트레이크 성전의 동쪽 첨탑 세 개와 그 위에서 서 있는 천사 모로나이가 담긴 사진을 붙였다. 카드 밑에는 “성탄절—1945”이라는 글자와 “빛은 다시 발합니다.”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¹⁰ 여러 해 동안 죽음과 파괴가 있었던 터라 모든 사람이 느꼈던 기쁨을 이보다 더 잘 나타낼 수는 없었다.

이 아름다운 성탄절 카드는 스미스 회장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회복에 대해 간증하는 그만의 방식이기도 했다. 전쟁이 종식되어 어둠이 드리운 곳에 평화와 빛이 다시 찾아오는 것처럼, 수 세기 동안의 배도에 이어 회복된 복음은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다시금” 진리의 환한 등불을 밝혔다.

후기 선지자들은 사랑, 봉사, 신앙, 희생을 모범으로 보임으로써 성탄절의 참된 기쁨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 때 온다는 것을 간증했다. 하워드 더블유 헌터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진정한 성탄절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을 움직이는 역동적이며 활기찬 힘으로 삼은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영은 구주의 삶과 사명에 있습니다.”¹¹ ■

주

1. Larry C. Porter, "Remembering Christmas Past," *BYU Studies*, vol. 40, no. 3 (2001): 94-96 참조.
2. 토마스 에스 몬슨, "크리스마스 선물, 크리스마스 축복, 성도의 벗," 1995년 12월호, 2쪽.
3. Porter, "Remembering Christmas Past," 104-5 참조.
4. Joseph F. Smith, "Christmas and New Year," *Improvement Era*, Jan. 1919, 267.
5. Joseph Smith, in Porter, "Remembering Christmas Past," 53.
6. Joseph Fielding Smith, in Joseph Fielding Smith Jr. and John J. Stewart,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1972), 255.
7. David Lawrence McKay, *My Father, David O. McKay*(1989), 70-71 참조.
8. 완공된 유타 세인트 조지 성전의 마지막 헌납식은 네 달 뒤인 1877년 4월 6-8일에 있었다.
9. *Wilford Woodruff's Journal*, ed. Scott G. Kenney, 9 vols. (1983-85), 7:297 참조.
10. Albert L. Zobell Jr., "It Being Christmas," *Improvement Era*, Dec. 1949, 826-27 참조.
11. *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ed. Clyde J. Williams (1997), 269.



거룩한 탈바꿈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성전은 경관을 변화시킨 것 이상으로 사람의 마음과 가족과 국가 전체가 변화하도록 영향을 끼치고 있다.

언덕의 탈바꿈

20 08년 9월 20일, 약 600명의 후기 성도들이 비에 흠뻑 젖은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시의 한 언덕에 모였다. 그들은 오랫동안 농장이었던 곳에 서서 중앙아메리카 지역 회장단의 지시 아래 함께 기도하고 간증을 나누었다. 그들 중 일부는 그 선택된 지점에 다가올 변화를 기대하며 오래된 토양 속으로 새 삽을

밀어 넣었다.

2001년 8월 21일, 경건하고 활기찬 후기 성도 수천 명이 똑같은 언덕에 모여서 서로를 기쁘게 맞았다. 그곳은 더는 농장이 아닌, 엘살바도르에서 가장 성스러운 장소로 탈바꿈했다. 성도들은 성전 주변에 모여 성전을 주님께 헌납할 선지자, 제일회장단의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을 간절하게 기다렸다. 한 오래된 회원은 이곳이 마치 주변과 동떨어진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성전 기공식은 그 지역에서 거룩한 변화가 시작됨을 알리는 이정표가 되었다.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성전을 짓기
위해 땅이
변화했던
것처럼,
아마도와
에블린 비밀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변화되었다.

“천국의 한 자락”인 것 같다고 속삭이듯 말했다.

가족의 탈바꿈

2010년 4월에 에블린 비밀은 남편인 아마도가 신앙을 잃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고 있었다. 남편은 참된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11년 동안 어떤 교회에도 가지 않았다. 한편 에블린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갈망으로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녀 보았지만, 들은 내용에 만족하지 못했다. 어떤 아침에는 눈물을 흘리며 잠을 깨기도 했다. 그런 날이면 에블린은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를 간구했다. 그녀는 하나님에 대해 배우기를 간절히 원하는데도 왜 자신이 가보았던 어떤 교회에서도 옳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는지를 하나님께 여쭙었다. 또, 언젠가는 가족 모두가 한 교회에서 단합하는 날이 오기를 기도했다.

2011년 8월 23일에 아마도와 에블린 비밀은 그들이 사는 도시의 언덕에서 일어났던 것과 같은 변화를 경험했다. 두 사람은 흰옷을 입고 아홉 살인 딸 미셀과 세 살배기 아들 크리스티안과 함께 인봉실로 들어갔다. 그들은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성전에서 현세와 영원으로 인봉된 첫 번째 가족이었다. 그들이 들어갔던 성전처럼 그들은 자신을 주님께 새로 헌납했으며, 또 헌납을 통해 하나가 되었다.

비밀 가족 이야기

아마도는 이렇게 회상한다 “우리 이야기는 장로들이 우리를 발견했을 때보다는 우리가 장로들을 찾았을 때 시작되었지요. 에블린의 부모님 댁을 나설 때 소피백을 여러 개 들고 있었는데 선교사들이 우리를 보고는 길을 건너오더군요. 그중 한 분이 도움이 필요하냐며 친절하게 물었어요.

그들은 또 우리를 방문해도 좋은지 묻더군요. 저는 호기심에서 그러라고 말했죠. 당시에 교회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다른 사람에게서 들었던 몇 마디 말뿐이었어요.

장로들에게 집에 와도 좋다고 한 후 저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무 들뜨지는 마요. 내가 교회에 가입할 거라는 환상은 아예 꿈도 꾸지 말고요. 난 단지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장로들은 우리를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면 저는 정중하게 집에서 나가 달라고 할 생각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아주 친절했고, 다른 교회에 대해서는 어떤 나쁜 것도 이야기하지 않아서 감명을 받았지요. 장로들은 사랑으로 부지런히 가르쳤고, 제가 묻는 많은 질문을 참을성 있게 받아 주더군요. 우리는 곧 그들에게 애정이 생겼지요.”

아마도와 에블린은 침례 확인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 될 준비를 조금씩 해나갔다. 에블린이 당면한 가장 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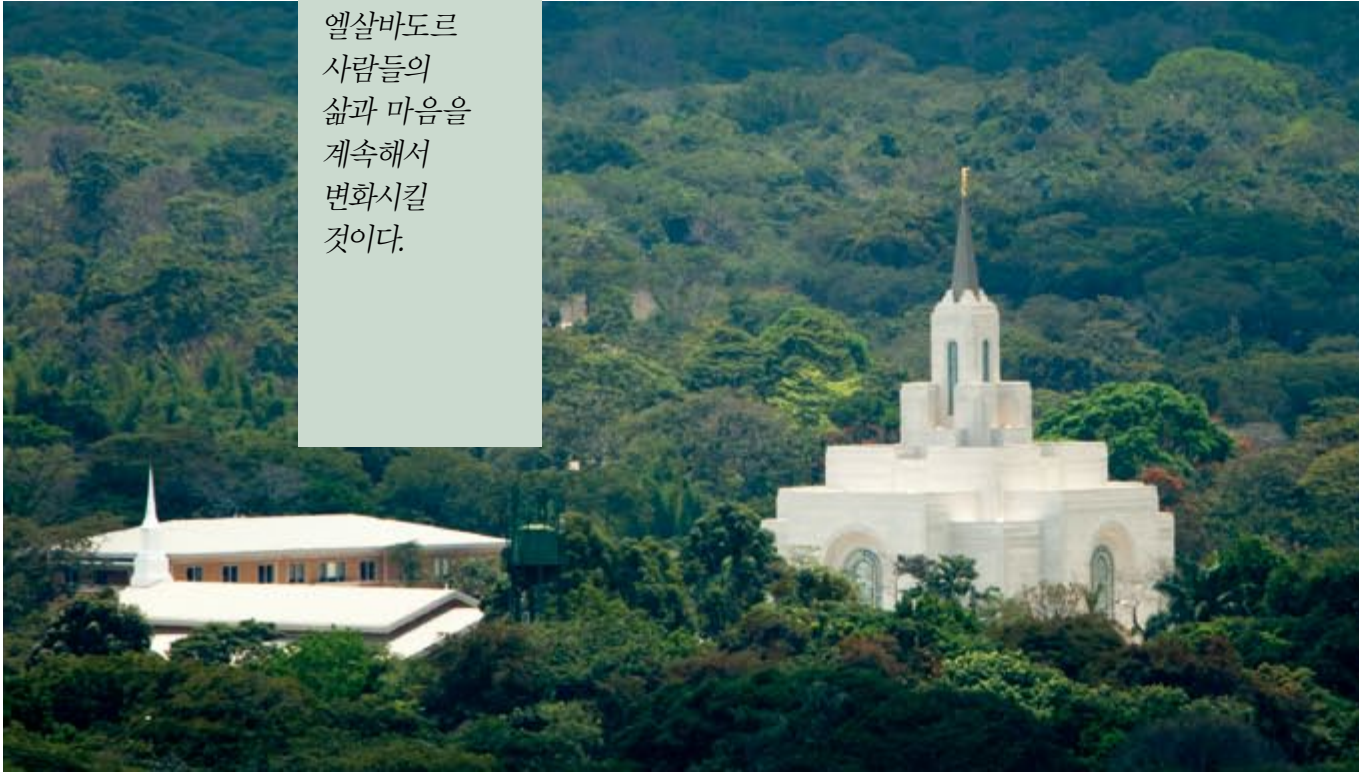
어려움은 지혜의 말씀이었다. 커피를 끊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마음이 슬퍼졌다. 아마도는 포기해야 할 나쁜 습관은 없었고, 대신 진리를 꼭 붙잡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는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을 믿었으며, 아내와 함께 다른 교회에는 빠져 있다고 느꼈던 많은 교리와 관행들, 즉 영원한 가족, 죽은 자를 위한 침례, 형제애와 조직에 관한 내용이 이 교회에는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침례 받는 일은 주저했다. 그는 그 교회에 가입하고 난 후에 혹여라도 이것이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후회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했다.

그러나 걱정은 곧 사라졌다. 에블린은 기도도 도움을 구하며 커피 중독을 극복해 냈다. 에블린은 말한다. “커피 때문에 축복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약 2개월간의 망설임 끝에 아마도는 침례를 받기로 결심했다. 에블린은 아마도가 지금도 가끔 “우리는 교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었어요.”라고 한다고 말한다.

변화와 축복

아마도와 에블린과 미셀은 2011년 6월 초에 침례와 확인을 받았다. 에블린은 이렇게 말한다. “침례를 받고 난 후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가족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었지요. 회복된 복음을 찾았고요.

성전은
엘살바도르
사람들의
삶과 마음을
계속해서
변화시킬
것이다.



그 이후에도 시련은 있었고 질병도 겪어 왔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많은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아마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가 처음으로 깨달은 변화는 가족의 결속이었어요. 이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더 단합하기 시작했어요. 복음 교리는 많은 도움이 되었지요.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가족의 신성함에 관해 배우고 난 뒤 우리는 가족에 더 큰 가치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세자르 오레야나 감독 역시 비질 가족의 삶에서 변화를 보았다. 침례 받은 직후에 아마도는 오레야나 감독에게 다가와 “십일조를 바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죠?”라고 말했다.

오레야나 감독은 수입에서 십 분의 일을 십일조로 바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아마도는 약간 걱정스러웠다. 그 당시 에블린은 직장이 있었지만, 그는 실직 상태였기 때문이다. 아마도는 감독에게 “우리는 수입이 항상 부족했지만, 그렇더라도 십일조를 바치고 싶습니다.”라고 털어놓았다.

오레야나 감독은 “형제님, 주님은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들은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 주어진 말씀을 포함하여 십일조를 충실히 바칠 때 얻게 되는 축복을 말하는 경전 구절을 함께 읽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어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라기 3:10)

이 구절을 함께 읽은 후에 오레야나 감독은 이 새로운 개종자를 바라보며 “십일조를 바친다는 것은 형제님이 수도료나 전기료를 낼 수 없더라도 십일조를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세를 못 내더라도, 심지어는 가족을 부양할 충분한 돈이 없을 때에도 십일조를 바치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형제님을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다음 일요일, 아마도는 오레야나 감독에게 다가왔다. 이번에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그저 감독에게 봉투를 건네며 “감독님, 여기 저희 십일조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경험을 떠올리며 오레야나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그 이후로 그들은 충실히 십일조를 바쳤습니다.” 가족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때 감독의 창고에서 몇 가지 물품을 받기도 했다. 그 이후에 주님은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 에블린은 승진했고, 아마도는 좋은 직장을 얻었다. 나중에 에블린은 직장을 잃었지만, 계속해서 십일조를 바쳤으며, 충실함을 잃지 않아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았다. 언젠가 오레야나 감독은 아마도에게 가족이 재정적으로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은 적이 있다. 아마도는 “잘 지냅니다. 때때로 먹을 것이 많지는 않아도 부족하지는 않아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한동안 십일조를 바친 후에 에블린과 아마도는 오레야나

감독과 그들이 받은 축복에 관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말라기 3장 10절을 언급하면서 그들은 “우리는 주님을 시험해 보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오래야나 감독이 약속한 것처럼 주님은 결코 그들을 저버리지 않으셨다.

새로운 시각

에블린과 아마도는 인봉실에서 가족이 함께 모인 날에 관해 다정하게 말한다. 그들은 엔다우먼트를 받고 인봉 의식을 준비하는 동안 자녀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부산스럽게 할까 봐 걱정했다. 특히 활기찬 세 살배기 아들인 크리스티안이 걱정되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왜 그곳에 있는지를 이해라도 하는 듯 평화롭고 경건하게 인봉실로 들어왔다. 자녀들이 인봉 의식에 참여할 때가 되자, 크리스티안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제단으로 걸어나 부모 곁에 무릎을 꿇었다.

에블린은 거울에 비친 가족의 모습을 보았던 때를 떠올린다. 아마도 역시 성전뿐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서도 그때를 말한다. 그는 자신의 삶을 인도하는 영원한 시각, 즉 미셸과 크리스티안이 주님의 집에 있는 동안 느꼈을 것으로 여겨지는 시각에 감사드린다. 그 이후로도 이런 시각은 더욱 확장되었고 특히 비질 가족이 8월에 성약 안에서 태어난 안드리아를 맞이할 때 더욱 그러했다.

언덕 위의 빛

비질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과 그들의 땅에 세워진 성전의 영향력을 통해 영원히 변화될 것이다. 농장이 성스러운 땅으로 탈바꿈되었기에 그들의 가정도 더욱 성스러워졌다.

그들은 여러 면에서 엘살바도르 나라 전체에 주어진 약속을 상징한다. 엘살바도르는 매일같이 세파에 시달리는 수백만 명의 선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엘살바도르



비질 가족은
2011년 8월에
헌납된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성전에서
인봉된 첫 번째
가족이다.

성도들은 조국을 사랑하며, 그곳에 세워진 주님의 성전을 보며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아이어링 회장의 성전 헌납 기도문 말씀에서 위안을 얻는다.

“이 나라 엘살바도르에 당신의 축복이 임하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통치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이 땅의 백성이 자유와 기회로 축복받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하도록 하시옵소서.

이 땅에서 당신의 사업이 번창하게 하시옵소서. 복음 말씀이 이 나라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키게 하시옵소서. 그들이 침례의 물가로 나아오게 하시며 당신께 충실하고 참되게 하시옵소서. ……

…… 감사에 찬 마음으로, 우리는 이 거룩한 건축물과 주변을 당신의 뜻이 성취되고 당신의 영원한 사업이 완수되도록 헌납하고 성별하나이다. 간구하옵나니 이 집의 영향력이 언덕 위의 빛으로서 이 땅의 전역에 임하게 하소서.”¹

이런 영향력은 비질 가족과 같은 사람들의 봉사와 모범을 통해서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 눈물을 흘리며 목이 메어 말을 잘 잊지 못하는 가운데, 아마도 비질은 자신과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성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선교사에 대해 애정을 담아

이렇게 말한다. “우리 아이들이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젊은 선교사들이 우리 가족을 축복한 것처럼 제 자녀가 다른 가족들을 축복할 수 있을 테니까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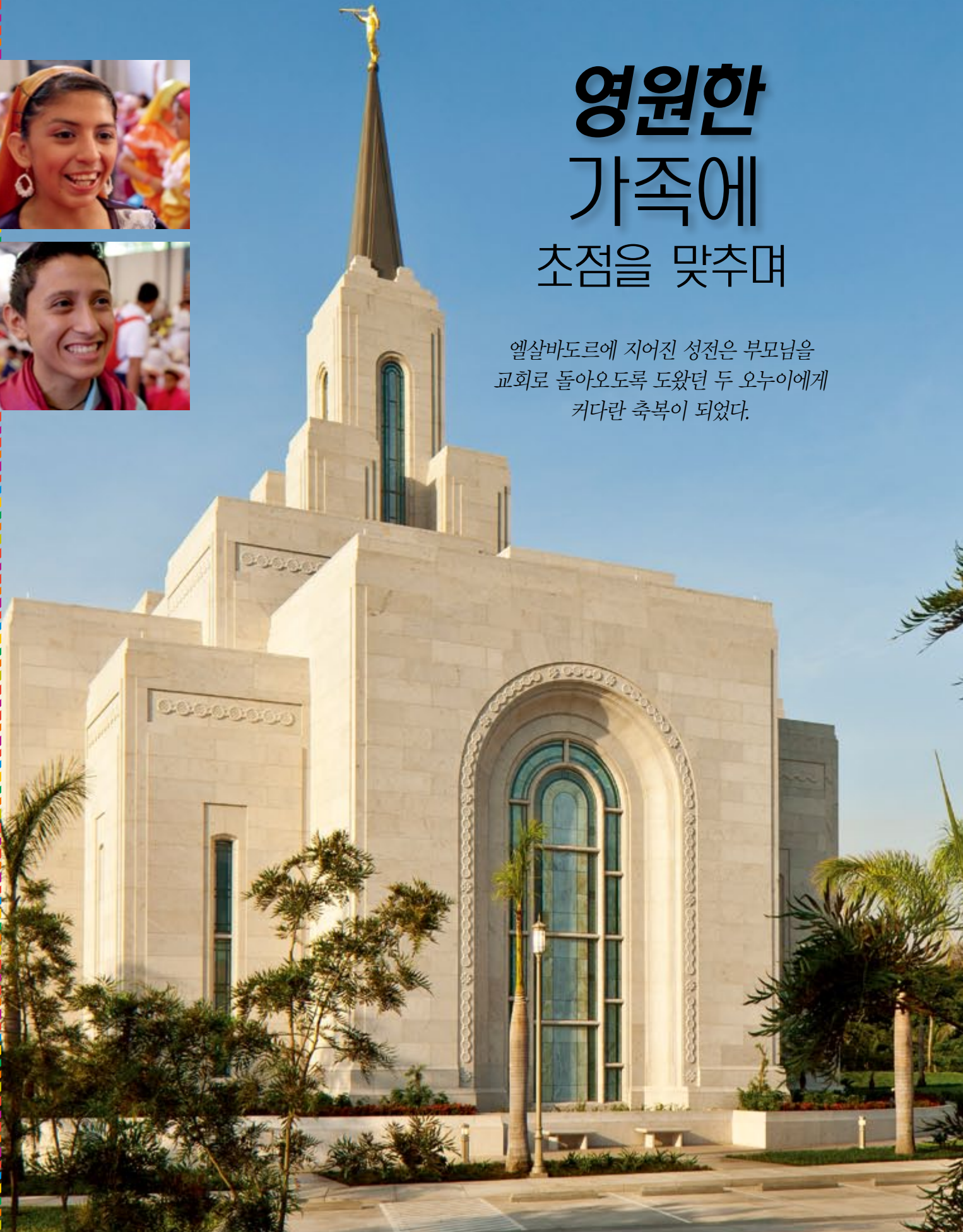
주

1. “May Peace Reign in the Land”—Dedicatory Prayer for El Salvador Temple,” *Church News*, Aug. 27, 2011, ldschurchnews.com.



영원한 가족에 초점을 맞추며

엘살바도르에 지어진 성전은 부모님을
교회로 돌아오도록 도왔던 두 오누이에게
커다란 축복이 되었다.



민디 레이 프리드먼
교회 잡지

케빈과 재클린 에스는 엘살바도르에 사는 오누이다. 둘은 서로에게 가장 좋은 친구이며 무엇을 하든 단짝처럼 붙어 다닌다. 그들은 복음과 가족을 참으로 사랑하며 가족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바란다.

케빈과 재클린이 어렸을 때 교회 회원들은 그들의 아버지에게 “언제 성전에서 인봉받을 겁니까?”라고 묻곤 했다. 그러면 아버지는 “엘살바도르에 성전에 세워질 때요.”라고 대답했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며

하지만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성전 건축이 2007년에 발표되었을 당시, 케빈과 재클린의 부모는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었다. 지금은 18세, 15세인 케빈과 재클린은 그래도 곳곳하게 교회에 참석했으며, 언젠가 부모님이 돌아오기를 기도했다.

재클린은 이렇게 말한다. “부모님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해 달라는 기도를 멈춘 적이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최선이 되는 것을 바라시며 우리가 영원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들은 또한 부모님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했다. 케빈은 이렇게 말한다. “한 번도 희망을 버린 적이 없었어요. 늘 경전을 읽고 기도했죠. 부모님은 제가 공부하고 가정 복음 교육을 하러 가고 또 교회 활동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어요. 계명을 지키고 발전하려고 노력하면서 부모님께는 모범을 보인 거죠.”

성전의 영을 느끼며

케빈과 재클린이 부모님을 위해 드린 기도는 성전이 완공될 즈음 응답되기 시작했다. “지도자들이 헌납식과 문화 축제를 발표했을 때 우리는 부모님을 초대했어요.” 케빈은 말한다. “우리가 청소년으로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말씀드렸어요. 이 일로 부모님의 마음이 많이 움직였죠. 또 부모님이 영적으로 발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케빈 가족은 문화 축제뿐 아니라 성전 일반 공개에도 역시 참석할 수 있었다.

케빈은 이렇게 말한다. “교회에 나오지는 않으셨지만 부모님은 늘 교회와 복음을 신성하게 여기셨죠. 성전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는 누이들과 제게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면 흰옷을 입으며 거기서 성스러운 의식을 행한다고 설명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케빈은 평소에는 혈기왕성한 두 살배기 여동생이 성전 내에서 잠전히 있는 것을 보고 감탄했으며, 여러 방과 그림들을 둘러보던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았다. 그 가족이 인봉실에 들어서자 관람 안내 봉사자는 여기가 바로 가족이 함께 영원히 인봉되는 장소라고 설명해 주었다.

재클린은 “여동생이 그때 우리를 잡으며 ‘엄마, 아빠, 케빈 오빠, 재클린 언니.’ 하고 불렀어요. 마치 하나님 아버지가 여동생을 통해 우리 모두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말하는 듯했어요.”라고 말한다.

케빈은 이렇게 말한다. “그런 후 여동생은 우리를 껴안고 뽀뽀하며 거울을 가리켰어요. 우리는 함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경탄했죠. 그날 인봉실을 떠날 때 우리는 다시 꼭 돌아오자는 목표를 세웠어요.”

관점을 다시 돌이키며

성전 일반 공개에 참석한 후 이 가족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케빈은 이렇게 말한다.





가장 중요한 목표

“만일 여러분이 아직 성전에 간 적이 없다면 성전에 다녀온 적은 있으나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셨다면, 지금 여러분에게는 성전에 가기 위해 합당해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표는 없습니다. …… 교회 회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으뜸 되는 축복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받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거룩한 성전은 세상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93쪽 참조.

온라인에서 더보기

케빈과 재클린에 대한 동영상과 산살바도르 엘살바도르 성전 헌납식 동영상은 lds.org/go/temple12에서 볼 수 있다.

“성전에 다녀온 이후 우리 가족은 관점을 다시 돌이켰어요. 그때 이후로 우리는 가정의 밤을 하기 시작했고, 부모님은 우리와 교회에 가서 예배당 맨 앞 줄에 우리와 함께 앉으세요.”

2011년 8월, 케빈과 재클린은 스테이크 센터에서 부모님과 함께 성전 헌납식 방송을 보면서 축복을 느꼈다.

케빈은 말한다. “2007년에 성전이 발표되었을 때 부모님은 저활동이셨죠. 헌납식에 부모님과 함께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부모님께서 저랑 함께 앉으셨을 때 저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내 기도 응답하셨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족과 함께 거기에 있었던 것은 제 삶에 있었던 정말 위대한 축복 중 하나예요.”

재클린은 이렇게 말한다. “성전에서 한 이 경험은 저를 강화시켰어요. 무엇보다 더 저를 강화시켰던 것은 성전을 통해 삶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예요. 성전 때문에 부모님이 다시 교회에서 활동화되셨거든요. 이제 우리는 성전에서 인봉받자는 목표를 세웠어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바라신다는 걸 알아요.” ■



나의 집에 사랑이 차고 넘치면

케빈과 재클린은 남매로서 매우 가까운 사이이다. 이 둘은 형제자매 간의 유대 관계가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배웠다. 이 둘이 어떻게 서로를 지지하는지 들어보자.

재클린은 이렇게 말한다. “오빠는 언제나 집과 학교에서

제가 할 의무를 다하도록 도와줘요. 저는 늘 오빠의 도움을 받아요. 오빠가 저를 사랑하고 언제나 저를 지지한다는 것을 한 치의 의심 없이 알고 있어요. 슬프거나 우울해질 때 오빠는 언제나 저를 격려해 준답니다.”

케빈은 이렇게 말한다. “제가 낙담할 때 여동생은 저를 지지하며 격려해 줘요. 여동생이 저에 대해 긍정적인 말을 해

주면 기분이 훨씬 나아지죠. 저는 동생의 모범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때때로 신앙을 포기하려 할 때마다 여동생은 의심하지 말라며 모든 일이 제 바람보다 더 잘 될 거라고 말해 줍니다.”

이 두 청소년은 보통 남매들처럼 자주 싸우지 않고 이런 훌륭한 관계를 유지해서 정말 기쁘다고 말한다. 케빈은 “우리가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여동생과 이런 관계를 맺게 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려요.”라고 이야기한다.

봉사를 통해 그분의 사랑을 느끼다

미셸 와스덴



성 탄절까지는 두 주가 남아 있었고 이날이 다가올 때면 으레 겪는 스트레스가 엄습했다. 선물도 사야 하고 트리 장식도 해야 하고 선물 전달도 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몇 달간 나는 다섯 자녀를 둔 엄마로서 매일 해야 하는 일 때문에 삶이 버거웠다. 교회 의자에 앉아 어린 아이들과 옥신각신하느라 교회 모임도 기계적으로 참석하는 듯했다. 나는 내 삶에서 영을 더 많이 느끼고 영적인 경험을 더 자주 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 당시 여동생은 내가 사는 곳과 인접한 주에 집을 새로 샀고 성탄절 전까지는 정리를 끝내려 했다. 그 같은 일은 어느 가족에게나 힘들겠지만 특히 동생 가족에게는 더더욱 그랬다. 동생은 당시 임신 8개월이었고, 어린 두 자녀가 있었으며, 사지가 마비된 남편까지 돌봐야 했기 때문이었다.

여동생이 당면한 시련을 알던 나는 상황이 좀 나아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 전화를 걸었다. 동생은 이사에 대해 낙천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새로운 와드 회원들이 도와줄 것으로 기대했다.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나는 동생이 잘되길 바랐고, 65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날 저녁, 계속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은 내가 거기 가서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내 일상을 생각하며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자마자 나는 똑같은 영의 느낌을 받았다. 이번에는 그 느낌이 너무나 강해 부인할 수 없었다. 나는 남편에게 전화해 “동생을 도와주러 가야겠어요.”라고 말했다. 남편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나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라고 답했다.

나는 동생에게 전화해 내 계획을 이야기하고 그날 오후 편 비행기를 예약했다. 나는 급히 짐을 꾸리며 아이들에게 입맞춤을 해 주고 공항으로 향했다.

사흘 동안 나는 이삿짐을 풀고 방을 정리하며 성탄절 트리 장식을 도왔다. 짐을 거의 다 풀고 난 후 나는 동생 가족과 함께 앉아 아름다운 성탄 트리에 감탄했다. 다섯 살짜리 조카는 자기 가족이 성탄절을 맞을 준비가 된 것에 기뻐하며 “정말 멋진 성탄절이 될 거예요!”라고 소리쳤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이 아름다운 가족을 위해 헌신했기에 내가 그토록

영원히 중요한 봉사

“아마도 비이기적인 봉사와 희생 중 가장 친숙하고도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가정에서 행하는 일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데 헌신합니다. 남편은 아내와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헌신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영원토록 중요한 이 봉사에 수반되는 희생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익숙한 것들입니다.”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희생”,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22쪽.

염원했던 영을 느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두 다 내가 타인을 위해 봉사했기에 가능했다.

성탄 절기에 봉사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쉽다. 그 봉사가 우리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고, 비용도 들지 않으며, 안락함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에만 말이다. 하지만 성탄절의 참된 영을 정말 느끼고 싶다면 우리는 자신을 넘어서야 한다. 그렇게 하면 구주께서 자기 자신에게 보이신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게리 이 스티븐슨 감독
감리 감독

계명을 지킬 때 오는 안전과 평화

몰몬경에 나오는 패턴과 진리는 분명하며 유익하고 담백하고도
소중합니다. 우리가 의로움과 순종으로 시작하면,
그 끝은 축복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디 지털 정보 시대에 24시간 흘러나오는 뉴스에는 항상 반복해서 나오는 익숙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진부한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배우나 운동선수, 혹은 정치가나 사업가로서 특출한 재능이 있었기에 인기와 명성을 누리 왔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기술이나 직업에서 최고로 인정받기까지 그들을 이끈, 몇 년에 걸친 연습과 헌신적인 봉사와 희생이라는 견인차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산산이 부서지고 맙니다.

그런 이야기의 마지막은 종종 등장인물들이 눈물 섞인 호소를 하며 판사, 주주, 유권자, 가족, 친구, 팬들에게 잘못된 행동을 용서해 달라고 비는 침통한 장면이 장식합니다. 그리고 대개 결국에는 그들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 지인들에게 상처와 수치심, 비참함을 안겨 주게 되며,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그들의 삶에 넓은 그물처럼 드리웁니다.

고대 몰몬경에 나오는 선지자 엘마가 그의 아들에게 한 권고인 “간악함은 결코 행복이 아니었느니라”(엘마서 41:10)라는 말은 간결하지만 심오하며 2,000여 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21세기에도 똑같이 의미가 깊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나도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을 때면, 회복된 복음에서 가르치는 계명을 알고 그 계명에 순종했더라면 그런 개인적 혹은 직업적 참극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법

니파이후서 2:11~27 참조



행복
(기쁨)

축복

순종
(의로움)

불순종
(사악함)

처벌

불행
(비참)



행복의 공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행복에 이르는 길을 보여 주는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경 전체에서 발견되는 명백하고 귀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선지자 리하이가 삶을 거의 마칠 무렵 아들들에게 준 가르침에 특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들 야곱에게 그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는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음이 꼭 필요함이라”(니파이후서 2:11) 몇 구절 뒤에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사람이 존재함을 기쁨을 갖기 위함이니라”(니파이후서 2:25)

야곱에게 준 리하이의 가르침은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순종과 의로움은 축복으로 이어지고 이는 기쁨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순종과 사악함은 처벌로 이어지고 슬픔을 가져옵니다. 구주는 모든 인류의 위대한 중보자이시며 행복과 영생으로 향하는 길을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악마는 거짓의 비참한 아버로서 사로잡힘과 죽음으로 향하는 길을 가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분명히 대적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사로잡힘과 죽음을 택하지는 않을 것임을 압니다. 하지만 그는 영원히 비참해질 것이기에 인류 또한 비참하게 만들려 합니다.(니파이후서 2:27) 그는 죄와 불순종의 결과를 왜곡함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거짓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스펜서 더블유 킴볼(1895~1985)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탄이 거짓의 아버임을 압니다. 여러분은 그가 어떻게 진리를 거짓으로 변모시키는지를 압니다. 그는 악을 잘 포장하여 아름답고 즐겁고 편안해 보이게 하며, 심지어 선한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¹

사탄은 행복을 얻는 공식이 사악함과 죄와 함께 시작한다고 믿게 해 왔습니다. 그의 유혹은 너무나 교묘히 가려지기에, 우리는 때때로 그가 심지어 “빛의 천사에 가깝게”(니파이후서 9:9) 변형되어 나타난다고 경고도 받았습니니다. 주님은 사탄의 타락과 목적에 관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런즉 사탄이 나를 [거슬러] 모반하였고, 나 주 하나님 사람에게 준 선택의지를 멸하려 하였으며, 또한 내 자신의 권능을 자기에게 주기를 구한 까닭에 나는 나의 독생자의 권능으로써 그가 쫓겨나게 하였느니라.

이에 그가 사탄이 되었나니, 그러하도다, 참으로 모든 거짓의 아버지인 악마라. 사람들을 속이며 눈멀게 하며, 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 가서 포로가 되게 하였느니라”(모세서 4:3~4)

행복으로 가는 길은 계명에 순종하는 의로움과 함께 시작합니다. 필멸의 삶에서 겪는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신성한 각본과 같은 계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주님은 회복 초기에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런즉 땅의 주민들에게 임할 재앙을 알고 있는 나 주는 나의 종 조셉 스미스 이세를 불러 하늘에서 그에게 말하였고 그에게 명하였으며”(교리와 성약 1:17; 강조체 첨가)

계명을 지키십시오

계명은 행복을 향한 길을 가는 동안 지켜야 할 것이라기보다는 그 길로 접어드는 출발점에 있는 것이라는 제 말이 언뜻 듣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일본 나고야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했을 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드리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제 아내 리사와 저는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영어 회화 수업에 참석하러 교회에 온 한 젊은 여성과 친분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활달했고 생기가 넘쳤으며, 꽤 많은 직장, 오래 사귄 남자친구, 가족을 비롯해 모든 면에서 삶의 중심을 잡고 있었습니다. 영어 회화 수업을 통해 알게 된 선교사들과 회원들 덕에 교회에 관심이 생겼고 선교사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회복된 복음의 진실함에 대한 그녀의 간증은 매번 선교사를 만날 때마다 꽃피는 듯했습니다. 그녀가 물론경을 읽고 숙고하며 물론경과 자신이 들은 것에 관해 기도했을 때 그녀는 그것들이 참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계명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하자 그녀는 자신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와 헤어졌고 일요일에 일해야 하는 직장도 그만두었습니다. 지혜의 말씀과 십일조의 법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신앙은 정말 강해서 계명을 배운 그 순간부터 실제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가족에게 교회와 회복된 복음에 관해 공부하겠다는 뜻을 알렸을 때, 부모님은 그것 때문에 그들의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명을 받아들인 지 몇 주 만에 그녀는 실직했고, 아파트도 잃고, 가족의 지원도 끊겼습니다. 분명 그녀의 순종에 대한 결과는 삶에 끔찍한 영향을 준

듯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처지를 몹시 걱정했습니다. 어느 날 정신없이 일과를 마치고 저와 아내는 밤 늦게 조용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잠시 선교 본부 숙소를 떠나 산책을 했습니다. 분주한 교차로에 이르렀을 때, 자전거를 타고 가던 이 젊고 활기찬 구도자도 우리와 똑같이 교차로에 다다른 것을 보고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포근한 웃음으로 우리를 포용하며 인사했습니다. 그렇게 늦은 시각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은 것에 놀라며 우리는 그녀에게 어디 가는 길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명랑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새 직장으로 가려던 참이에요. 패스트푸드 식당 드라이브인 창구에서 야간 근무를 하거든요.”

이 직장은 예전 직장에 비해 임금과 지위도 턱없이 낮았고, 근무 시간도 매우 짧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현세적으로 큰 시련과 상당한 퇴보를 겪었지만, 그녀의 모습에서는 행복이 느껴졌습니다. 곧이어 그녀는 자신의 침례 날짜가 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선교 본부로 다시 걸어가면서, 그녀가 새로 알게 된 계명을 신앙으로 순종했을 때 어떻게 참된 기쁨의 길로 인도되었는지를 돌이켜보며 감탄했습니다.

몇 주 후에 그녀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가족과 화해했고 더 나은 직장을 찾았습니다. 침례 받고 몇 년이 지난 후, 그녀는 청년 독신 성인 활동에서 만난 귀환 선교사와 함께 도쿄 성전에서 인봉되었습니다. 이제 영원한 가족을 이룬 그들은 최근에 귀여운 아들을 얻었습니다. 계명을 지킨 결과 그녀의 삶에 일어난 일을 잘 묘사해 주는, 짧지만 감미로운 찬송가가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안전과 평화 있네
주 축복 주시리 주 축복 주시리
예언자 말씀 계명을 지키라



안전과 평화 있으리니²

물문경에 나오는 패턴과 진리는 분명하며 유익하고 담백하고도 소중한입니다. 우리가 의로움과 순종으로 시작하면, 그 끝은 축복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

주

1. Spencer W. Kimball, "The Blessings and Responsibilities of Womanhood," *Ensign*, Mar. 1976, 70.
2. "계명을 지키라," *어린이 노래책*, 68~69쪽.

우리가 분주한 교차로에 이르렀을 때, 자전거를 타고 가던 이 젊고 활기찬 구도자도 우리와 똑같이 교차로에 다다른 것을 보고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와 저는 선교 본부로 다시 걸어가면서, 그녀가 새로 알게 된 계명을 신앙으로 순종했을 때 어떻게 참된 기쁨의 길로 인도되었는지를 돌이켜보며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죠?

상 호부교회 회장인 나는 조그만 우리 지부의 몇 가족이 직면한 도전과 시련이 버겁게 느껴졌다. 어려운 시기였고, 일부 회원들은 실직까지 했다.

교회 밖에서는 가족을 부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들의 눈에서 낙담, 슬픔, 절망을 볼 수 있었다. 심지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조차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드러냈다.

지부의 지도자들은 가장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약간의 희망과 사랑이라도 전해야겠다고 느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시련을 알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돕자는 것이었다.

**지부 회장이
계산대에 돈을
올려놓았을 때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었다.**

성탄절이 다가오자 우리는 이 지역의 극빈층 아동들에게 저녁을 대접하자고 제안했다. 지부 회원들은 기금 모금을 하고 패스트푸드점에서 음식을 구입하고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집회소를 준비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어린이, 청년, 청년을 비롯해 모두가 참여했다.

우리는 패스트푸드점에 찾아가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사회 복지사들에게 연락해 가장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을 찾아 달라고 했다. 그들은 100명 정도 되는 아동의 명단을 주었는데, 그 수는 우리 예상보다 훨씬 많은 수였다. 우리의 열의는 사그라지지 않았지만, 그토록 많은 어린이를 위해 음식을 살 충분한 돈을

마련하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드디어 저녁 식사를 대접하기로 한 그날이 왔을 때, 지부 회장님은 집사 몇 명과 함께 우리가 모금한 기금을 가지고 패스트푸드점으로 향했지만, 부족한 기금으로 어떻게 그 많은 어린이를 먹일 수 있을지 난감해했다. 그들은 가면서 기도했고, 가장 어린아이들만 초대하거나 아니면 음식량을 반으로 줄여 내놓든지, 그도 아니면 그냥 모임을 취소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식당에 도착해서 지부 회장님이 돈을 계산대에 올려놓았다. 그들의 기도가 응답된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식당 매니저가 빙그레 웃으며 자신들이 무상으로 식사 전부를 기부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는 게 아닌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말로는 표현 못할 만큼 기뻐했다. 덕분에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그 많은 어린이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주고 음식도 충분히 줄 수 있었다.

식당의 호의에 감사하며 우리는 음식을 사려고 모금한 돈으로 도움이 절실한 가족들을 위해 음식 바구니를 만들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선한 의도로 우리의 재능을 이웃에게 봉사하는 데 쓸 때 어떤 노력도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 뒤 주님께서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간증도 더 굳건해졌다. ■

마타 페르란데스-레볼로스, 스페인



누군가 멜라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들 녀석이 세 살, 딸아이가 네 살일 때,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이웃끼리 모임을 하나 만들어 자주 어울렸다. 그해 겨울, 부모들은 아이들이 각자 자기 장난감 하나씩을 어려운 가정에 기부하게 하는 성탄절 행사를 계획했다.

성탄절 몇 주 전부터 우리는 아이들을 모아 놓고 감사하는 것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여러 번에 걸쳐 가르쳤다. 나는 아이들이 나눌 장난감을 스스로 선택하는 경험을 하게 하고 싶어서 아이들에게 어떤 장난감을 주고 싶은지 생각해 보라고 했다. 우리집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기에, 그 많지 않은 장난감 중에서 과연 아이들이 어떤 것을 주려고 할지 궁금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나는 아이들에게 이제 기부할 장난감을 선택하라고 말했다. 나는 아들 헨티가 고른 장난감 트럭을 포장하도록 도와주고 나서 딸 미켈이 뭘 하는지를 보려고 가 보았다. 딸아이의 방문 앞에서 나는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미켈은 가장 아끼는 인형인 멜라를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힌 후 노래를 불러 주고 있었다. 그리고는 선물 봉투 맨 밑에 작은 담요를 깔았다. 미켈은 인형을 향해 싱긋 웃고는 꼭 껴안고 뽀뽀한 후 봉투 안에 사랑스럽게 넣었다. 나를 보더니, “엄마, 멜라는 준비됐어요. 누군가 멜라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라고 미켈은 말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나는 아이들에게 이제 기부할 장난감을 선택하라고 말했다. 딸아이의 방문 앞에서 나는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내 딸이 그 인형을 얼마나 끔찍이 아끼는지 알기에 나는 딸이 그 인형을 주려고 하는 것에 놀랐다. 가장 아끼는 인형을 줄 필요까진 없다는 말이 튀어나올 뻔했지만, 그냥 참았다.

나는 생각했다. ‘베푸는 것을 이해하고 있구나.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주려고 하잖아.’

문득 나 자신을 돌아보며, 어떤 면에서는 기꺼이 주고 나누려 하지만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마음은 그리 크지 않음을 깨달았다. 내 사랑에 한계선을 그어 놓았던 것이다. 내가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털끝만큼의 죄도 없는 아들을 포기하시고 나를 위해 고통과 사망을 겪도록 허락하셨는지를 생각했다. 사랑

많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 아들을 사랑하고 따르기를 바라시며 그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 지상에 아기로 태어나게 하시는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 보았다.

구주는 그분이 주셔야 하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다.

장난감을 기부하기로 한 이 성탄절 행사 전에 마음을 바꾸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봤으나 미켈은 그러지 않았다. 나중에 행여라도 그 선택을 후회하고 슬퍼하지 않을까 생각도 했지만, 미켈은 그러지 않았다.

딸의 그리스도와 같은 모범을 보면서 나는 내가 줄 것이 많은 적든 나눌 기회가 있을 때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제일 좋은 것을 주겠노라고 다짐했다. ■
브리트리 파인, 미국 유타



여러분은 마음으로 노래하더군요

2000년 12월에 우리 스테이크 합창단은 합창 축제 개최를 준비 중이었다. 아르헨티나 포사다스 시에서 꽤 유명한 몇몇 합창단이 참여를 확정했고 그밖에도 많은 사람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우리는 노래를 부르면서 구주의 탄생을 대한 간증을 나누고 싶었다.

합창단 지휘자인 나는 좀 초조했다. 쌍둥이를 가진 임신부였고 임신 8개월째였던지라 불안감은 더욱 컸다. 공연 전 주에 한 최종 연습 때는 고통이 심해 앉아서 지휘할 수밖에 없었다.

최종 연습이 끝날 즈음에는 더는 참을 수 없을 지경까지 되었다. 남편 카를로스과 아버지는 내게 축복을 해 주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이 나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의사들은 그날 아이가 태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무서웠지만, 남편은 주님을 신뢰하라고 말했다.

곧 갓난아기의 울음이 방안을 가득 채웠다. 그 소리를 듣고 내 가슴은 기쁨으로 뛰었으나 의사가 가까이 다가와 “이건 키라의 소리에요. 애브릴은 숨을 쉬지 않네요.”라고 말했다.

나는 내 몸을 감싼 그 기분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곧 나는 남편이 기다리고 있는 다른 병실로 옮겨졌다. 우리는 서로 끌어안고 울었다.

남편은 “여보, 주님이 애브릴을 왜 그분 곁으로 데려가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강해져야 하오.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신앙으로 전진해야 해.”라고 말했다.

잠시 후 남편은 자그마한 키라를 안아 들고, 그 아이가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했다. 키라는 살아남았지만 합병증으로 10일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나는 한 주 뒤에 퇴원했다. 나는 키라에게 젖을 물리려고 병원에 여러 번 가면서 합창단 일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 축제 전날 밤, 아버지는 내게 지휘할 것인지 결정했느냐고 물으셨다. 아버지는 “애야, 기도해 보아라. 그러면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옳은 결정을 내릴 거야.”라고 말씀하셨다.

아직 병원에 있는 키라가 떠올랐고, 공연을 열심히 준비해 온 합창단원들

악기와 목소리가 어우러지자 내가 아름다운 곳에 있다는 생각이 온 몸을 감쌌다.



생각도 났다. 나는 구주와 그분의 탄생, 삶, 희생을 생각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다.

합창단원들이 다음날 저녁에 우리 가족에게 보여 준 사랑은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들이 만들어 낸 화합의 정신은 가슴에서 우리나라 오는 소망을 발현시켜 그곳에 참여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우리가 축제를 주최했기에 우리 스테이크 합창단이 마지막에 무대에 올랐다. 피아노와 바이올린이 “첫 번째 노엘” 도입부를 연주했을 때 눈물이 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윽고 악기와 목소리가 어우러지자 내가 아름다운 곳에 있다는 생각이 온몸을 감쌌다.

노래가 끝나고 몸을 돌려 바라보니 청중 대부분이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아마 평화와 사랑이라는 복음 메시지를 들어 보지 못한 사람들도 우리 음악을 통해 하나님 아들의 탄생을 주는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느꼈을 것이다.

나중에 다른 합창단 지휘자 중 한 사람이 우리에게 “실력은 우리의 합창단이 더 뛰어났지만, 여러분은 마음으로 노래하더군요.”라고 말해 주었다.

성탄절 전날 밤, 남편과 나는 키라를 보내 주시고 또 그분의 아들을 지상에 보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렸다. 그 아들이 속죄를 치르셨고 또 우리가 성전에서 인봉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애브릴이 언젠가 우리와 함께하리라는 것을 안다. ■

다프네 아벨리아 로메로 드 타우, 아르헨티나 미시오네스

팝콘, 개척자, 그리고 평화

엄마는 오븐에 넣어 둔 벽돌을 꺼내어 담요로 싸셨다. 이 벽돌은 온풍기 없이 차를 타고 여행하는 우리의 발을 따뜻하게 해 줄 것이다. 1935년 12월 초, 우리는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유타 주 페이슨까지 96킬로미터를 운전해 조부모님 댁에 가는 중이었다. 약하게 훑날리는 눈발이 저만치 앞에서 작은 토네이도처럼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프레드 오빠와 나는 두꺼운 외투와 간지러운 양털 양말과 목도리로 중무장했다. 일곱 살인 나에게는 그 여행이 끝이 없는 것만 같았다.

우리는 매년 12월이면 이렇게 여행을 했다. 태너 할머니와 할아버지 댁에 도착해 따뜻한 부엌에서 팝콘 볼을 만들고 있으면, 그제야 '성탄절이 시작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할아버지는 불을 지피시고 할머니는 옥수수 알갱이를 철제 바구니에 가득 담아 오동통하고 하얀 팝콘이 될 때까지 불 위에서 세차게 흔드셨다. 그런 후 할머니는 커다란 무쇠 솥에 팝콘을 넣고 따뜻한 꿀과 버터를 섞어 끼얹은 뒤 땅콩과 함께 버무리셨다. 그것이 식으면 우리는 버터 범벅이 된 손으로 그걸 집어 먹었다.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누어 줄 축제용 팝콘 볼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해 성탄절은 좀 달랐다. 보통 오빠와 나는 뒷좌석에 타는데 그해에는 앞좌석에 부모님 사이에 끼어서 탔다. 뒷좌석에는 1년밖에 살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떠난 남동생 제럴드가 조그만 하얀색 관에

넣어 있었다. 처음에는 흥역을 앓았지만 결국 폐렴으로 번져 우리는 이 어린 생명을 잃게 되었다. 우리는 출발 전에 영안실에 가서 그 작은 목관을 차에 싣고 여행길에 올랐다.

두 시간의 여행 동안 아빠는 우리에게 성탄절 노래를 부르게 하셨다. 아빠와 엄마가 화음을 넣으셨고, 남동생의 죽음을 슬퍼하던 우리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위로받았다.

할아버지 댁에 도착했을 때, 여느 때라면 가족과 친척들의 환호성이 들렸겠지만, 그날은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뒷좌석에서 관을 내려 할머니 댁의 말끔한 응접실로 옮겼다. 할아버지 할머니네 와드의 감독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서 차를 타고 공동묘지로 향했다. 우리는 얼어붙은 땅에 이 소중한 아기를 묻으며 흐느꼈다.

성탄절이 다가왔다. 불이 지피고 팝콘을 튀겼다. 축제용 팝콘 볼은 할아버지의 말이 끄는 썰매에 실려

전달되었다. 그날이 슬프기는 했지만, 나는 신앙심이 깊은 조부모님이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를 읽어 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잔잔하게 퍼지는 평화를 느꼈다.

조부모님은 많은 아기를 땅에 묻어야 했던 개척자 부모에게서 태어나셨다. 우리 가족이 죽은 동생을 위해 애도하면서, 우리 조상이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의 말씀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했다. 그해에 내가 기억하는 성탄절은 전혀 달랐다. 구유에서 태어난 그 아기 덕분에 우리가 땅에 묻은 아기가 다시 살아나 우리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 후로 수십 년이 흘렀지만 매년 성탄절마다 나는 여전히 팝콘 위에 꿀과 버터를 끼얹고 땅콩에 버무리 팝콘 볼을 만들며 추억에 잠긴다. ■
셀리 허스트 쉴즈, 미국 유타

두 시간의 여행 동안 아빠는 우리에게 성탄절 노래를 부르게 했다. 아빠와 엄마가 화음을 넣으셨고, 슬퍼하던 우리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위로받았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여러분 안에 있는 성탄절

신앙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좋은
것을 추구하십시오.
누군가에게 친절한
일을 하십시오. 선물과
성탄절 장식 생각은
접어두고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누구나 집에서 떠나 맞이한 첫 번째 성탄절을
기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선교 사업, 군
복무, 학업, 취업으로 집을 떠났을 것입니다.
이유가 어떻든 집을 떠나 맞이한 첫 성탄절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저리게 하는 기억입니다. 성탄절에 집을
떠나 있었던 분들 혹은 올해 그렇게 될 분들에게 제
추억을 바치고자 합니다.

저는 선교사로 봉사할 때 그런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성화: 물만

19년 동안 으레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성탄절을 보냈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이었던 어린 시절에는 성탄절을 다른 방식으로 보내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1960년 성탄절 무렵에 저는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지구 반 바퀴나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영국에 온 지 3개월도 채 안 된 12월 1일에 저는 선교 본부에 가서 제 첫 번째 후임 동반자가 된 캐나다 앨버타 주 챔피언에서 막 도착한 엘던 스미스 장로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서리 카운티에 있는 길퍼드라는 보수적인 도시에서 선교 지역을 열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곳은 후기 성도 선교사가 간 적이 없는 곳이었고, 그 지역에 산다는 단 한 명의 회원은 어디에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고 경험도 없고 약간 부담도 느꼈지만 겁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경찰서에 가서 등록하고 숙소를 마련했습니다. 그 교회 회원을 처음에는 찾지 못했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 가가호호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그야말로 밤낮없이 즐기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거리를 돌아다녔는데, 영국 역사상 12월에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린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아침, 정오, 오후, 밤까지 흠뻑 젖은 채로 돌아다녔지만

가가호호 전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들어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탄절 전날이 되자 사람들은 더더욱 “식민지”에서 온 두 선교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쳤지만 헌신적으로 일했던 우리는 방 한 칸짜리 임대 숙소로 돌아가 성탄절 영적 모임을 했습니다. 성탄절 찬송을 부르고 개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경전 구절을 읽고 성탄절의 참된 이야기라는 녹음테이프를 들었습니다. 그런 뒤 또 다른 성탄절 찬송가를 부른 후 폐회 기도를 드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기쁜 성탄절은 아예 생각나지도 않았습니다.

성탄절 아침, 우리는 어느 때처럼 아침 공부를 하고 그곳으로 이동한 후에 받은 두세 개의 소포를 열어 보았습니다. 그런 후 가가호호 전도를 했습니다. 아침, 정오, 오후, 밤까지 문을 두드렸지만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무미건조한, 전무후무할 정도로 가장 축제당치 않은 성탄절이었지만 1960년 12월의 그 특별한 날들은 제가 기억하는 한 가장 감미로운 성탄절입니다.(5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말입니다!) 그 이유는 제 생애에 처음으로 성탄절을 즐기기보다는 이해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정말 의미 깊은 방식으로 저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삶이 전하는 메시지, 즉 그분의 메시지와 그분의

사명, 사람들을 위해 하신 그분의
희생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일찍 그러한 것을 깨달았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 보낸 그 성탄절에 몸은 젖고
추위에 떨며 웬지 모를 중압감마저 든
19세 선교사였던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참으로, 그러한 선교 사업 경험이
있었기에 성탄절이 제게 주는 의미가
그 이후로 매년 더 커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단 성탄절의 의미뿐
아니라 복음의 다른 많은 측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저는 어느 캐럴
가사처럼 “성탄절을 집에서” 보내지
 못하는 모든 선교사, 군 복무 중인 모든
형제 자매, 학생, 직장인, 여행자에게 제
사랑을 전합니다. 신앙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좋은 것을
추구하십시오. 누군가에게 친절한 일을
하십시오. 선물과 성탄절 장식 생각은
접어두고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외부 환경에 처해 있든지,
성탄절이 하나님의 왕국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누가복음 17:21)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

“A Mission Christmas,” *Church News*, Dec. 17,
2011, 10에서 발췌

주

1. James “Kim” Gannon, “I’ll Be Home for Christmas”
(1943).



메리 앤 쿡
본부 청년 회장단
제1보좌



성탄절 장식, 그리스도와 같은 친구들

저는 성탄절 트리를 장식하려고 몇 년간 눈길도 주지 않고 쓰지도 않던 성탄절 장식품이 가득한 상자를 풀었습니다. 성탄절 전구와 식탁보를 해집으며, 결혼 전 교편을 잡을 때 모았던 성탄절 장식품으로 가득한 옷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집들이—1984”라고 적힌, 십자수가 놓인 수수한 장식품을 발견했을 때 1984년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어느샌가 제 마음은 그 시절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독신이었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청년 독신 성인 와드에서 가족 와드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성탄절을 좋아하지만 어떤 시기에는 정말 외로웠습니다. 30대에 독신이며 자녀도 없었던 저는 때때로 뒤쳐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불쌍하고 조금은 나이 든 자기 증후군”이라 부르던 것에 다시 빠져들면서 저 자신에게 쉽게 연민을 느꼈습니다. 특히 1984년 그해에 저는 그 증후군을 극복하며 나 자신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위해 성탄절을 어떻게 더 즐겁게 만들 수 있을지 의식적으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와드로 최근에 옮겨왔던지라

상호부조회 자매들을 초대해 제 조출한 아파트의 집들이를 하면 함께 이 명절을 축하하며 그들과 친해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들이에 생각이 미치자 상자에 수북이 담긴 장식품으로 자그마한 성탄절 트리를 장식했던 것, 독신 친구들이 제게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준 쇼트 브레드 쿠키의 향, 그리고 손님들에게 대접했던 엄마표 “화이트 크리스마스 펀치”의 달콤함이 떠올랐습니다.

다양한 장식품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와 같은 많은 친구들, 어려운 시기에 저를 사랑했고 나이를 막론하고 조언자가 되어 주었던 이들이 생각나 따뜻한 사랑과 감사함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풀을 뺏뺏하게 먹인 레이스로 뜯 눈송이를 꺼내 보면서 저를 위해 그것을 만들어 주셨던 한 연로한 자매님의 사랑이 떠올랐습니다. 또 자신이 아는 것을 가르쳐 주시던 여러 와드의 연로한 자매님들도 생각났습니다. 저는 레이스, 뜨개질, 바느질, 태팅(매듭을 지어 만드는 레이스-웁긴이)을 이 상냥한 자매님들께 배웠습니다. 그분들은 시간을 기꺼이 할애하고 특히 인내심을 보이시면서

그분들이 즐겨 하는 것을 저도 즐길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조그만 낚시 호른을 보자 제가 청소년 때 특별 음악 순서를 위해 아침 일찍 연습 모임에 오라고 권유한 음악 재능이 뛰어났던 합창단장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분의 자신감은 제게 클래식에 대한 사랑을 심어 주셨고 이후로 합창단에 속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미키 마우스 장식을 집어들면서 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어느 부부의 아이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떠올랐고, 막 걸음마를 시작한 그 아이들과의 시간을 허락해 준 그 부부에게 새삼 고마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아이들은 곧 제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그 아이들을 안고 책도 읽어 주고 놀아 주며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고통스럽고 텅 빈 상실감을 채워주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구주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1984년에 “제 삶을 제쳐” 두고 주변을 돌아보겠다는 의식적인 결정은 참으로 저 자신을 “찾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많은 분이 구주의 말씀을 따라 자기 삶을 제쳐 두고 저를 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탄절 장식품은 그리스도와 같은 친구들을 감미롭게 추억하게 해 주었습니다. ■



성탄절 손수건

스콧 엠 무이
교회 잡지

어린 시절에 나는 엄마가 가족에게 줄 성탄절 선물을 포장하는 것을 매년 거들어 드렸다. 결혼한 언니 오빠가 다섯이었고 조카도 13명이나 되었기에 선물 포장은 절대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형형색색인 포장지로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나는 우리가 언제나 언니를 위해 손수건을 포장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엄마는 언니에게 잠옷이나 블라우스 혹은 주방용품도 선물했지만 항상 손수건을 함께 보내셨다. 나는 손수건이 비싸지 않으면서 쓸모가 많다는 건 알았지만, 언니가 이 선물을 너무 자주 받아서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도 했다.

어느 12월에 나는 결국 이렇게 말했다. “언니한테 또 손수건을 보내려고요? 거의 매년 보내시잖아요. 이제 그만 보내도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더 많이 필요한 건데요? 안 그래도 언니 가족에게 보낼 선물 배송비가 비쌀 텐데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엄마는 가위를 내려놓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갈 거야. 네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지.

네가 어떻게 이 나라에 오게 되었는지 알지?”(그랬다. 엄마의 가족은 엄마가 아이 넷을 키우는 홀아비와 결혼한 것보다도 엄마가 네덜란드를 떠나 미국으로 가게 된 것에 더 충격을 받았었다.) “하지만 네가 모르는 게 있단다. 우리가 여기에 왔을 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지. 삶이 힘들었어. 아버지는 직장을 두 군데나 다녔지만 월급이 적었어. 나도 세탁과 다림질을 해서 살림에 보탬이었는데도 여전히 돈이 부족했단다.

그때 열일곱 살이던 앤은 우리 빛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았어. 그래서 우리를 돕기로 결심하고 일을 시작했지. 도심에 있는 사탕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버스를 타고 출근해서 종일 계산대에 서 있어야 했단다. 계산대 뒤에 음식을 보관할 수가 없어서 점심은 매일 사 먹어야 했지만, 점심값과 차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월급을 다 우리에게 주었지.

앤은 자기 월급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어. 하지만 어린 남동생들 때문에 걱정하는 건 내색하지 않았어.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었거든. 네 오빠들은 새로 사귄 미국인 친구들이 갖고 싶은 장난감을 산타 할아버지에게 부탁해 놓았더라고 말했지. 만일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안 오신다면 어떻게 될까?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서 앤이 월급날이 아닌데도 돈을 주더구나. 난 어디서 났느냐고 물었지. 앤은 점심을

먹지 않고 아껴서 모았다고 했어.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몇 주간은 점심을 걸렀을 거야. 앤은 그 돈으로 남동생들 성탄절 선물을 사라고 했지. 난 새엄마인데도, 앤은 내가 딱 맞는 선물을 사줄 거라고 믿었던 거야.

나는 저렴한 물건들을 샀지만 온 가족을 위한 성탄절을 만들고 싶었다. 굴과 곰 인형 비누, 크레용, 작은 장난감 자동차, 네 아빠가 신을 양말 등을 샀지. 그리고 앤을 위해서는 손수건을 샀단다. 수수한 모양이었는데 난 밤을 새워 손수건에 수를 놓아 예쁘게 만들었지. 내 새 딸이 우리에게 성탄절을 선사했다는 것이 정말 기뻐서 성탄절에 앤에게 뭔가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었어.

성탄절이 되었을 때, 우리 가족은 교회 친구들이 성탄절 트리와 선물기 수북이 담긴 상자를 들고 와서 깜짝 놀랐단다. 그들은 신문지로 포장한 변변찮은 선물이라며 미안해했지만 정말 대단했단다! 그 안에는 유용한 물건들과 맛있는 음식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 그리고 바로 그때, 앤과 나는 몰래 숨겨 왔던 선물을 꺼내 식구들을 또 한 번 놀라게 했지. 산타가 우리 집에 온 거지. 오빠들이 정말 신 나 하더구나! 이내 작은 거실 바닥에 깔린 신문지 위아래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놀았지. 정말 바닥에는 신문지 천지였단다! 앤은 선물을 풀어 보고 손수건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 나도 눈물이 났고.

우리 가족은 성탄절 음식을 만들었지. 아, 오랫동안 먹어 보지 못했던 특별한 음식들이었지! 그리고 깨끗이 치웠단다. 그리고 나서 앤은 손수건을 챙겨서

넣어 두려고 나갔는데 손수건이 사라진 거야. 우리는 구석구석 다 찾아봤지. 그때 이런, 네 아빠가 신문지를 몽땅 불태워 버렸다는 생각이 스치더구나. 손수건도 불탔을까? 아마 그랬으니까 찾지 못했겠지. 하지만 앤은 불평하지 않았단다. 이미 앞질러진 물이니 소용없었지. 앤은 동생들이 행복하니까 자신도 행복하다고 말했어.

다음 성탄절 때 나는 앤에게 손수건을 선물했지. 이번에는 잃어버리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시켰단다. 앤이 결혼해서 분가했을 때에도 나는 앤에게 성탄절 손수건을 보냈단다. 지금은 앤이 손수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보내는 게 아니야. 내가 손수건을 보내는 건 우리가 함께한 첫 번째 성탄절 때 앤이 한 일을 내가 절대 잊지 않겠다는 것을 말해 주기 위해서지.”

엄마가 내게 이 이야기를 하신 후 몇 년이 지나 우리는 온 가족이 모여 성탄절을 축하할 수 있었다. 야단법석인 가운데서도 나는 앤 언니가 손수건 선물을 푸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언니가 엄마에게 다가가 엄마의 손을 꼭 붙잡으며 눈물을 글썽이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것을 이해했다. 그것은 단순한 손수건이 아니었다. 둘 사이의 사랑과 선물, 희생을 특별히 기억하게 하는 물건이었다. 손수건은 우리가 성탄절을 축하하는 이유를 상기시켜 주었다. 희생이 따랐던 가장 위대하고 사랑 가득한 선물, 바로 그 선물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성탄절을 축하하는 것이다. ■

“저 자신도 성전에 대해 잘 모르는데 친구가 성전에 대해 질문하면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자 신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란 어려운 일이며, 성전에는 직접 그곳에 들어가 보기 전까지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성전은 성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성전 바깥에서 성전 의식을 언급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전의 축복과 목적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들에게 성전에서 회원들이 영원한 진리를 배우고, 자신을 위한 성스러운 의식을 받고, 조상과 죽은 자들을 대신해 그러한 의식을 행한다고 말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대해 더 잘 알수록 친구들의 질문에 더 잘 대답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더 알아보고 싶다면, 부모님이나 교회 지도자들과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친구들은 성전에 관해 다룬 *리아호나 특별호*(2010년 10월호)를 보거나 Mormon.org에 접속해 자주 묻는 질문에서 “성전” 아래에 나오는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성전에 대한 느낌을 나눌 수 있습니다. 대리 침례를 하러 성전에 갔거나 성전 경내에 간 적이 있다면 거기서 느낀 평화를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왜 성전이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는냐고 물어보면, 성전에서는 성스러운 의식이 진행되며 오직 영적으로 준비되고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가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성전이 헌납되기 전에 열리는 성전 일반 공개에서 지역 주민들은 성전을 둘러보고 성전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성전이 헌납된 후에는 누구나 성전 경내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친구들을 성전 일반 공개에 초대하거나 함께 성전 경내를 둘러보십시오.

성전에 가기에 합당하십시오



저는 친구들에게 성전이 제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성전은 제게 행복, 힘, 희생, 영원한 가족을 뜻하죠. 어떻게 합당함을 유지하는지도 설명합니다. 제가 성전을 아주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친구들이 본다면, 성전의 힘을 느낄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전 외관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올바른 생활을 함으로써 성전 안에 들어갈 때 느끼는 행복과 희망을 친구들에게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에머 알, 18세, 미국 유타

더 배울 수 있도록 친구들을 초대하세요



적절한 한도 내에서 여러분이 아는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성전에 대한 것 중 일부를 이야기하지 않는 까닭은 그것이 성스럽기 때문이라고 말해 주세요. 만약 잘 모르는 것을 질문해 오면,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하세요. 더 알고 싶어서라면, 교회에 초대하거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적 지식을 축복해 주신다고 말해 주세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배울 때 말씀에 말씀을, 교훈에 교훈을 더해서 배운다고 믿습니다.

카밀라 비, 18세, 필리핀

영의 대답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저는 친구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무엇을 이야기할지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여쭙니다. 많은 인내가 필요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려 주는 영의 속삭임을 듣기 위해 기다리는 것은 값진 일입니다. 또, 교회와 성전 침례식에 가서 더 많은 영적인

지식을 얻으세요. 친구들이 성전에 대해 질문하면 저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은 조상을 위해 행하는 침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조상들은 하늘에서 의식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해 줍니다.

리디아 피, 13세, 미국 플로리다

친구들이 선교사와 만나도록 초대하세요

친구들이 성전에 대해 물어볼 때 저는 성전이 주님의 집이며,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워질 수 있는 특별한 의식을 받고 이를 통해 그분께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저는 친구들에게 선교사들과 만나 더 배우고 싶는지 물어봅니다. 싫다고 하면 친구들의 질문을 적어서 선교사님들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그런 후 제가 알게 된 답을 친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성전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됩니다.

키미 에이치, 13세, 미국 몬태나

성전 사진을 보여 주세요



저는 전 세계 성전 사진이 담겨 있는 책들을 즐겨 읽습니다. 한 친구가 성전에 대해 물었을 때 저는 제 설명으로는

친구가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사진이 나오는 책을 가져가서 성전이 어떤 곳이며, 성전이 세워진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가 성전을 방문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일요일에 교회에 같이 가자고 권유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교회에

가면 선교사들과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친구에게 더 많은 것을 알려 줄 테니까요.

제시카 에이, 18세, 인도네시아

부모님께 말씀드리세요



답을 찾아보세요. 경전을 읽고 주일학교 선생님들께 여쭙 보세요. 질문이 있으면 답도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답을 찾는 것뿐입니다. 기도해 보세요! 저는 성전에 관해 궁금할 때면 부모님께 여쭙어 봅니다. 부모님과과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은 기꺼이 저를 도와주시려 합니다.

브라이슨 비, 18세, 미국 유타

성전에 가세요

할 수 있는 한 자주 성전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와 더 돈독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친구들의 질문에 대해 그분께 기도드릴 수 있음을

뜻합니다. 성전에 대해 잘 모른다면 더 공부해야 합니다. 매번 성전에 가기 전에 그곳에 있는 동안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를 연구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전에 가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와 같은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라 티, 14세, 미국, 아이다호



주님께 거룩함

“성전은 아름다운 장소요, 계시의 장소이며, 평화의 장소입니다. 그곳은 주님의 집입니다. 성전은 주님께 거룩한

곳입니다. 성전은 우리에게도 거룩한 곳이어야 합니다.”

하워드 더블유 헌터(1907~1995) 회장, “우리가 교회 회원임을 나타내 주는 중요한 상징”, 성도의 빛, 1994년 11월호, 6쪽.

다음 질문

“어떻게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2013년 1월 15일까지 liahona.lds.org에서 liahona@ldschurch.org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Liahona, Questions & Answers 1/13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보내 주신 의견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 혹은 우편에 다음 사항과 동의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와드(또는 지부), (4) 스테이크(또는 지방부), (5) 서면 동의서, 18세 미만인 경우 원고와 사진을 출판해도 좋다는 부모 동의서(이메일도 가능)

어떻게 그리스도께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청소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따를 수 있을까요?

“저는 친구를 교회, 상호 향상 모임, 저녁 식사에 초대해요. 조금만 신경을 써도 그들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아르망 에프

“우리 와드에서 선교 사업을 나간 선교사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제니 알

“때때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죠.”
라이언 비

성 탄절의 정신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겠다는 소망을 가슴 속에 심어 줍니다. 성탄절을 기념할 때, **주님과 그분께서 주신 선물을 늘 기억하겠다는 약속을 더욱 잘 지키게 됩니다. 그 기억으로 그분께 선물을 드려야겠다는 소망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쳐 그분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는지를 주님은 알려 주셨습니다. 첫째, 우리는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바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화개하고, 그분과 성스러운 성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둘째, 주께서 사람들을 위해 하실 일을 해 드림으로써 선물을 바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실천 가능한 일들이 길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생을 마치고 주님을 뵈 때, 모두가 듣고 말하기를 바라는 구속주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혈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마태복음 25:37~40)

이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어떤 선물을 드려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주님은 하늘 아버지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누구에게라도 **친절한 행위를 할 때**, 그것은 주님께 드리는 친절인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때 주님뿐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수 없이 많은 감사의 빛을 진 그분의 아버지께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탄절이 오면, 많은 분들은 배고픈 이들에게 음식을 나눌 방법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값지고 영속적인 선물**을 줄 방법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요한복음 6:35) 그분께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친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영생의 유일한 원천이 되시는 **주님을 섬기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려 주는 것입니다. ■**

2010년 제일회장단 성탄절 영적 말씀인 “구주의 선물”에서 발췌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세요

이 경험을 적용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고 ids.org/go/gift12에서 다른 청소년들의 경험을 읽어보세요.



엎드려 절하세

“우리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그분께로, 그리고 빛 안으로 나아오라고 초대하십니다.”

패트리 키아론 장로, 칠십인 정원회, “엎드려 절하세”, *리아호나*, 2011년 12월호, 42쪽



데이트에 관해서



래리 엠 깁스
본부 청남 회장단
제1보좌

다른 사람과 얼굴을 마주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진정한 우정을 쌓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저는 종종 교회의 청남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당히 많은 청소년으로부터 이성과 더 훌륭한 우정을 쌓는 데 관심이 있지만,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온갖 소셜 미디어 덕분에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더 쉽게 잘 소통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술 때문에 그다지 의미 있는 관계는 맺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트위터, 문자메시지, 이메일, 친구 맺기로는 원만한 관계를 제대로 형성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과 실제로 얼굴을 마주하고 보내는 시간은 진정한 우정을 쌓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훌륭한 청소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청남 청년가 함께 모여 사교적 경험을 하는 것에 대해 옛 정의를 적용할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그 용어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경험은 한때 데이트라고 불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

여러분 대다수가 새로운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소책자에 나오는 데이트와 권고에 대해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제가 받았던 질문 몇 가지와 이 훌륭한 안내서에 나오는

답변입니다.

제가 데이트할 준비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데이트를 준비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데이트는 여러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서는 데이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청남 청년가 서로에 대해 더 잘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계획된 활동을 말합니다. 데이트가 용인되는 문화권이라면, 데이트는 여러분이 사교성을 기르고 우정을 키우며 건전한 오락을 즐기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동반자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¹

16세 전에는 데이트를 해서는 안 되며 아직 어릴 때는 진지한 데이트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 16세가 되기 전에는 데이트를 해서는 안 됩니다. 데이트를 시작할 때에는 한 쌍 이상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나십시오. 같은 사람과 빈번하게 데이트하는 것을 피하십시오. 너무 이른 나이에 진지한 만남을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볼 기회가 축소되고, 자칫하면 부도덕한 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²

한 청남이 저랑 데이트하고 싶어해요. 하지만 그 아이는 저와 표준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높은 도덕적 표준을 따르고, 함께할 때 여러분의 표준을 지켜 줄 수 있는 사람하고만 데이트하십시오. …… 데이트를 신청하거나 신청을 받을 때, 또는 거절할 때에도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르게 하십시오.”³

데이트 활동으로 영화보는 것 말고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오는 권고대로 생활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봉사
- 성적 순결
- 십일조와 헌물
- 일과 자립

제목에 "For the Strength of Youth"라고 써서 여러분의 경험을 liahona@ldschurch.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이메일에는 성명, 생년월일, 와드 및 스테이크, 여러분의 대답을 출판해도 좋다는 부모 동의서(이메일도 가능)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서는 다음과 같이 유익한 원리를 제시합니다. "데이트를 할 때에는 안전하고 긍정적이며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서로를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을 계획하십시오. 표준을 지키고 영을 가까이할 수 있는 곳에만 가도록 하십시오."⁴

이처럼 간단한 네 가지 기준, 즉 안전하고 긍정적이며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영을 가까이할 수 있는 데이트는 더 많은 훌륭한 데이트를 할 여지를 남깁니다.

제가 아내를 만난 초기에 했던 데이트를 되돌아볼 때 가장 뚜렷이 기억나는 시간은 저렴하게, 혹은 비용이 전혀 들지 않은, 적어도 다른 한 쌍과 함께 데이트를 했을 때였으며, 우리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며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정결을 지켜 주며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오는 또 다른 중요한 인용문을 하나 들고 마지막 핵심 사항을 이야기하며 마칠까 합니다. "데이트를 하는 청년 청년은 서로 명예와 정결을 지켜 줄 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⁵ 데이트를 할 때 수치스러워할 만한 일은 어떤 것도 하지

마십시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데이트를 할 때 상대방을 존중하며 상대방도 여러분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기를 기대해야 합니다."⁶

데이트와 구애의 차이점

마지막으로 혹자는 데이트를 "구애"라고 정의할지 모르나, 교회 청소년들 사이에서 데이트는 "진지한 만남"이나 혹은 다른 사람과는 데이트를 하지 못하는 관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표준에 따르면, 데이트는 많은 우정을 쌓을 사교적인 관계를 맺는 기회여야 합니다.

성인이 되면(청남들은 선교 사업을 마치고 난 후)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고린도전서 11:11) 이 시기에는 데이트가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강조되어 있는 것처럼 구애로 바뀝니다. "성인이 된 후에는 데이트와 결혼을 높은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성전에서 현세와 영원을 위해 인봉될 수 있을 합당한 동반자를 찾으십시오. 성전에서 결혼하고 영원한 가족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에서 필수적인 일입니다."⁷ ■

주

1.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2011), 4쪽.
2.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4쪽.
3.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2001), 4~5쪽.
4.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4쪽.
5.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4쪽.
6. Thomas S. Monson, "Standards of Strength", New Era, Oct. 2008, 5.
7.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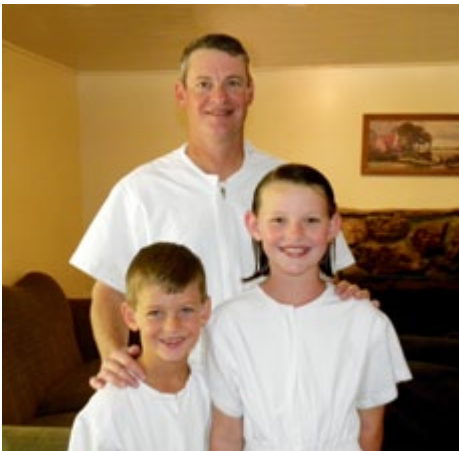


히카리 로프터스
교회 잡지

가족이 있기에

똑 같은 가족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족을 “현세 및 내세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단위”로 제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살건, 어떤 가족을 이루었건 간에 복음은 가족 안에 더 큰 행복이 머물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가족과 더 강한 관계를 맺고 영적인 힘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사는 청소년들이 가족이 그들에게 왜 중요한지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가족에 속함으로써
받은 모든 축복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가족은 영원합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사는 에린과 가족(왼쪽)은 영원한 가족이 되자는 한 가지 목표를 늘 염두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에린의 아버지는 교회 회원이 아니었습니다.

에린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엄마와 우리들은 아빠가 복음의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바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기 때문이죠. 아빠가 그 행복을 누리기를 바랐어요. 우리 모두 한 가족으로 인봉되기를 간절히 원했죠.”

영원한 가족이 되겠다고 굳게 결심한 에린과 형제자매들, 그리고 어머니는 계명을 지키고 강한 신앙을 키우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몇 년이 걸리긴 했지만, 에린의 아버지는 마침내 침례와 확인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침례 받은 지 열흘이 지난 후 에린의 남동생과 여동생에게 침례를 줄 수 있었습니다. 곧 이 가족은 성전에서 인봉되는 목표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가족에게서
힘과 지지를 얻습니다**

아프리카 카메룬에 사는 엘리자베스와 오빠 이나우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어머니께 의지해 왔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줄곧 저희를 돌봐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보호해 주셨어요.”

엘리자베스의 가족(위)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단결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와 이나우는 2010년에 교회에 들어온 이후, 가족의 영원한 중요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말합니다. “[복음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거예요. 가족은 늘 세계 아주 중요했어요. 왜냐면 가족을 통해 지금의 제가 있게 된 것이니까요.”

가족을 통해 성장하고 평안을 얻습니다

스위스에 사는 아디나는 가족이 건전한 오락 활동을 함께 하면서 어떻게 서로 재능을 발전시키도록 도울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² 아디나의 가족은 매달 가족 소풍을 계획해서 서로의 취미에 대해 더 알게 되는 시간을 보냅니다. 아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자매에게 우리의 삶과 열정에 대해 더 깊이 파악할 기회를 주죠.” 한번은 아버지가 가족에게 개 훈련법을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아래) “아버지의 열정과, 아버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과 취미를 저희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많이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아디나는 이러한 가족 활동을 통해 여러 가지 재능이 생겼습니다. 또, 삶에서 더 많은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통해 일상 생활에서 오는 압박에서 벗어나 쉴 수 있고 평화롭게 숨쉴 수 있어요. 또, 힘을 얻고, 제가 인생을 홀로 맞설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감사하죠.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빠르고 요란하잖아요. 제가 다시 충전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기뻐요.”

이유가 각기 달랐지만, 이 청소년들은 가족을 통해 지지와 평안,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주

1. 가족 지도서(소책자, 2001), 1쪽.
2.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참조.



**헌신적인
가족**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가족입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할 때, 삶의 모든 면은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으로서 또 교회로서 지상의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고 희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을 수 있도록”,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98쪽.





포장할 수 없는 선물

봉사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선물 중 하나는 봉사입니다. 부모님은 그런 선물을 좋아하실 것입니다.

- 집안 청소하기
- 아기 돌보기
- 밥상 차리기 및 뒷정리
- 가족을 위해 저녁 식사 만들기
- 설거지 혹은 바닥 쓸기
- 동생 숙제 도와주기
- 인도 위의 눈 치우기 또는 뜰에서 잡초 뽑기



엘리스 알렉산드리아 흄스

성 탄절이 오면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훌륭한 선물 중에는 포장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잊지 못할 선물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시간

일정이 바쁘더라도 가족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세요. 여러분이 함께하면 부모님을 도울 수 있고 그분들은 여러분의 노력에 고마워할 것입니다.

- (미리 말해 주지 않더라도 알아서) 가정의 밤에 참여하기
- 형제자매와 함께 놀기
-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에 늦지 않기
- 가족과 대화하며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기
- 가족 기도와 경전 공부에 참여하기
- 친구들보다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또는 (부모님 동의 하에) 친구를 가족 활동에 초대하기



결심

부모님께 뭔가 중요한 것을 결심했다고 알려세요. 여러분의 결심을 가장 잘 보이는 방법은 지금 시작해서, 계속 지키는 것입니다.

- (청남이라면) 선교 사업 준비하기. 가능하면 지금 선교사 기금 마련을 시작하십시오.
- 매일 경전 공부하기
- 수업의 일부를 저축하기
- 불평하지 않고 학교에 가고 제때에 숙제하기
- 세미나리 참석하기. 새벽반 세미나리에 참석하기 위해 스스로 일어나기
- 성전 결혼 준비하기. 미래의 배우자에게 바라는 중요한 자질들을 목록으로 적어 보고 스스로 그러한 자질들을 계발하기



태도

부모님은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보이는 훌륭한 태도를 고맙게 여길 것입니다.

- 긍정적인 태도 취하기
- 부모님 혹은 형제자매들의 결점 지적하지 않기
- 작은 것이라도 고마움을 표현하는 습관 들이기
-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 하신 모든 것에 대해 감사 편지 쓰기
- 화내거나 언쟁하지 않고 부모님 혹은 형제자매들과의 다툼 해결하기
- 말 그대로, 자신이 받은 축복 세어 보기. 부모님의 도움 덕분에 가능했던 일을 목록으로 적어 보고 부모님과 함께 그 목록에 대해 이야기하기 ■

고린도전서 15:20~22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사람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아 죽음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선언과 동시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부활할 것입니다. 이는 곧 영혼이 구속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리아호나*, 2011년 4월호, 4쪽.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는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고 믿지만 그 엄청난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는지는 의문입니다. 불멸에 대한 확신은 우리 신앙에서 필수 요소입니다. ……

영원한 우리의 여정에서, 부활은 필멸의 종결과 불사불멸의 시작을 알려 주는 중대한 이정표입니다. …… 우리는 또한 현대의 계시로부터 부활로 영과 육신이 결합하지 못하면 ‘충만한 기쁨’(교리와 성약 93:33~34)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부활”, *리아호나*, 2000년 7월호, 18쪽.

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1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첫 열매—수확 초반에 익은 과일, 채소, 곡물

모세 율법에 따라 첫 열매는 주님께 감사와 헌신을 보이기 위해 성스러운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첫 열매는 수확의 시작과, 더 많은 곡물이 수확될 것임을 나타내기에, 사도 바울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잠자는 자들”) 가운데에서 첫 번째로 부활하셨다는 것과 더 많은 이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과 이브의 타락으로 모든 인류는 육체적 죽음을 겪어야 합니다.(니파이후서 9:6; 모세서 6:48 참조).

편집자 주: 이 기사는 선정된 성구에 대해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 학습을 시작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계획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모든 기독교 말씀 중에 이것보다 제게 더 뜻깊은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시신을 돌보려 무덤으로 다가가며 흐느끼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에게 한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누가복음 24:5~6)

이 땅에 살다가 죽은 사람들과, 지금 살아 있으나 언젠가는 죽을 사람들,



주린 자를 먹이며

우리는 작은 것을 통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커다란 필요 사항을 해결할 수 있었다.

앨런 시 월콕스

브라질 상파울루 링스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던 시절인 2004년 12월이었다. 그 지역의 와드와 지부는 브라질에서 매년 열리는 “Natal sem Fome”(배고픔이 없는 성탄절) 행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우리는 브라질 군인, 우체부, 다른 종교인들을 비롯해 여러 단체의 사람들과 함께 몇몇 인근 지역을 돌며 그 도시의 빈민에게 나눠 줄 음식을 모았다. 또한 그 행사를 우리가 “우정 카드”라고 부르는 전도용 카드를 줄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 우리는 약 2,000개의 카드를 나눠 줄 수 있었다.

많은 회원들이 작열하는 브라질의 태양 아래에서 성탄절의 정신을 나누고 봉사하며 받은 놀라운 느낌을 이야기했다. 자신이 다니지 않는 교회의 전도용 카드를 나눠 주는 군인들을 보고 있노라니 감개무량했다.

한 주가 지나서 우리는 물론 태버네클 합창단이 나오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절 DVD를 요청하는 연락을 127건이나 받았다. 그 다음 주에는 22건의 요청이 더 들어왔다. 동반자와

나는 이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이 프로그램 덕분에 많은 가정을 방문할 수 있었다.

이 특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가족이 배고픔을 달래도록 도우면서 느낀 기쁨과 사랑을 나는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영적, 육체적 굶주림 모두가 채워졌다.

나는 (전도용 카드처럼) 작고 단순한 것을 통해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같이) 많은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안다. 이 경험은 성탄절은 물론이고 다른 때에라도 주변에 산재하는 많은 기회를 통해 우리는 이 놀라운 사업과 기이한 업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

기쁘다 구주 오셨네 DVD와 DVD를 받기 위한 전도용 카드는 store.lds.org에서 구할 수 있다.



1.8 M
(6')

1.4 M
(4'8")



집사로서 함께 성장해요

모습은 서로 다르지만,
이 두 청년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타일러 더블유는 키가 180센티미터이며, 붉은색 머리에 신발은 310밀리미터를 신습니다. 게릿 브이의 키는 140센티미터이며, 갈색 머리에 신발은 195밀리미터를 신습니다. 체격은 서로 다르지만, 그들의 가족은 이 둘을 “쌍둥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청년은 절친한 친구인데다 공통점도 많기 때문입니다.

게릿과 타일러는 열두 살이며, 함께 집사 정원회에 있습니다. 두 소년은 운동 경기를 하는 것과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일, 새로운 것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둘 다 복음에 대한 간증이 있으며 아론 신권을 존중하려고 노력합니다. 게릿은 “신권 의무를 완수해야 해요. 그래야 배움을 얻을 수 있죠.”라고 말합니다.

두 청년은 성찬을 전달하고 금식 헌금을 모음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한 와드의 다른 집사들에게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권유함으로써 서로 친분을 쌓도록 돕습니다. 게릿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오지 않으면 우리 중 한 명이 교회에서 배운 것을 쪽지에 써요. 그리고는 그 쪽지를 전하며 ‘교회에 꼭 와.’라고 말해 줘요.”

게릿과 타일러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 프로그램을 합니다. 둘은 각자 경전을 더 잘 읽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타일러는 “경전은 정말로 믿음과 간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라고 말합니다.

이 청년들은 여러분 혹은 여러분이 아는 집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점도 있고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을 섬기고 싶어하며, 신권 정원회에서 단합한다는 것입니다. ■

정원회가 단합하는 방법

타일러와 게릿처럼 여러분은 집사로 성임될 때 신권 정원회에 속하게 됩니다. 다음은 정원회가 단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 모두를 참여시킨다.
- 지도자의 가르침을 따른다.
- 함께 봉사한다.
- 복음 표준대로 생활하도록 서로 돕는다.
- 격려한다.
- 서로의 말을 경청한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으로 부름
받습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을 살 때 그분의 증인이 됩니다. 우리의 행동, 말, 보는 것, 생각은 그분과 그분의 방법을 반영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느낌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분의 증인이 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나타내 보일 때 그분의 증인이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하고 그들이 그분에 대해 배우고 따르도록 도울 때 그분의 증인이 됩니다.

레이철 린 바우어
실화에 근거

“모든 하나님의 어린이들이여,
사랑의 선물 한아름 안고 와서
경배하라.”(The Shepherd’s Carol,
Children’s Songbook, 40)

가 정이 밤 할 시간이야!
아빠께서 부르셨습니다.
저는 얼른 거실로
갔습니다. 12월 첫째 주 가정의
밤에는 언제나 재미있는 것을
합니다.

한발 앞선 여동생 미셸이 폭신한
파란색 안락의자로 몸을 날렸습니다.

“정말 이럴래? 지난주에도 거기
앉았잖아. 이번엔 내 차례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먼저 왔거든, 난 여기 앉을
거야. 언니는 소파에 앉아.” 동생도
질세라 말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기 싫어.” 하고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흔들의자로 쿵쾅거리며 가서
미셸이 안 보이게 의자를 돌렸습니다.
미셸 때문에 정말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미셸은 원하는 것은 뭐든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불평할 때마다 엄마는
이타심을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한 후,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탄절은
즐겁고 신나는 시간이지만, 이날의 참된
의미를 기억해야 한다. 오늘밤은 먼저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로 시작하자꾸나.”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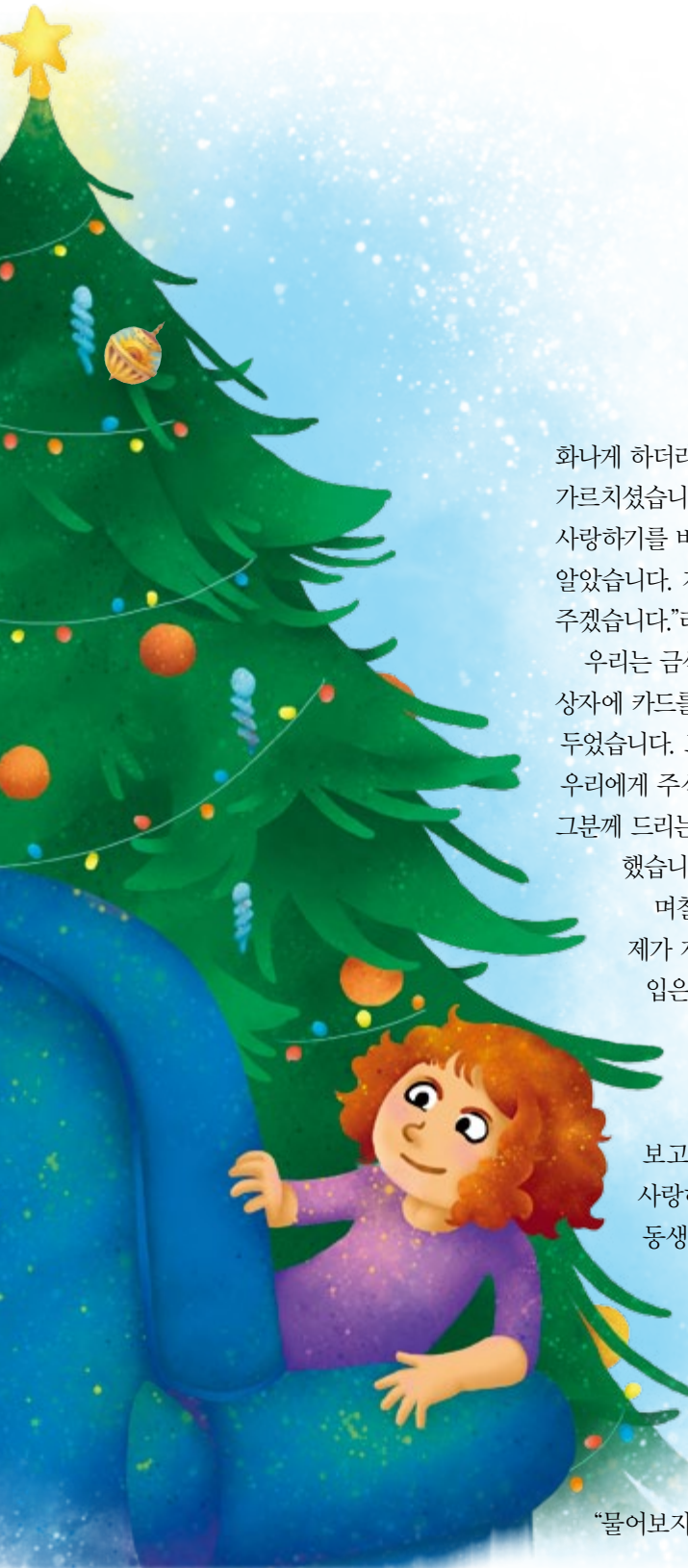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란다.” 아빠께서는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는, 영생이라는
가장 위대한 선물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셨지.”

“그 대가로 그분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실까?” 엄마께서 물으셨습니다.

오빠는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카드와 펜을 나누어 주시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화나게 하더라도 그들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동생을 사랑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미셀에게 잘 대해 주겠습니다.”라고 썼습니다.

우리는 금색 포장지로 싸인 상자에 카드를 넣어 성탄절 트리 밑에 두었습니다. 그 상자를 볼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구주의 선물과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선물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 미셀이 말도 없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티셔츠를 입은 것을 보았습니다.

미셀에게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금색 상자를 보고서 제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떠올렸습니다.

동생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으로 그 사랑을 보여 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미셀, 오늘따라 정말 예뻐 보이네.” 하고 말했습니다.

미셀은 상긋 웃었습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입어서 미안해.

티셔츠 입으려는데 언니가 없었어. 오늘 우리 반에서 성탄절 파티를 하는데 좀 더 예쁘게 보이고 싶었거든.”

저는 마음속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셀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선택해서 기뻐했습니다.

그달 내내 저는 좋은 느낌들을 기억하며 예수님처럼 되겠다는 제 목표를 기억하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좀 더 잘 참고, 사랑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성탄절 전날 밤, 아빠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읽어 주셨고 우리는 연극으로 그 이야기를 표현했습니다. 저는 마리아 역할을 놓고 미셀과 다투는 대신 그냥 천사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금색 상자를 열어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의 선물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제 것을 읽었을 때 엄마는 “미셀에게 더 잘 대해 주는 것을 엄마도 느꼈단다.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아직 어떤 선물도 풀어 보지는 않았지만 이미 뭔가 특별한 것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바로 성신이 제게 옳은 일을 했다고 말하는 느낌 말입니다. ■

그분께 보여 드릴 수 있을지 적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더욱더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 할 일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선물이었습니다.

제가 무얼 드려야 하는지는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저를



“다른 여러 성탄절 전통이 있겠지만 이 성탄절 기간에는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Elder Russell M. Nelson of the Quorum of the Twelve Apostles, “Christ the Savior Is Born”, *New Era*, Dec. 2006, 2.

우리들 이야기



성전 보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

칠레 산티아고의 라 플로리다 제3와드에 다니는 초등회 어린이들은 초등회 지도자들과 감독단과 함께 성전 부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정원을 돌아보면서 성전의 목적에 대해 이야기했고 "나 성전 보고 싶어"(어린이 노래책, 99쪽)를 불렀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다룬 비디오도 보았습니다.



성전으로 오세요

성전에서 안부를 전합니다. 에콰도르 리베르타드 스테이크 소속인 저와 다른 아이들이 에콰도르 과야킬 성전 부지에 간 날은 정말 대단했어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성전을 보러 오라고 말해 주고 싶어요. 성전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아이다 브이, 10세, 에콰도르



성탄절—그리스도 나셨네,
올루추쿠 오, 9세, 나이지리아



아론 신권의 회복,
펠리페 엘, 12세, 브라질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관해 가르쳐 드릴게요

초 등회에서 "요셉 스미스의 첫번째 기도"(찬송가, 24장)를 배웠는데 전 이 찬송가가 제일 좋아요. 선교사가 되면 제가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성스러운 숲 이야기를 해 줄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사랑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아요.

악셀 시, 5세, 페루



성스러운 숲, 악셀 시.



치그리에(판지 공작)로 표현한 몬슨 회장님

지난 6개월간, 일본 시즈오카 현의 후지 와드에 다니는 초등회 어린이들은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의 모습을 치그리에(손으로 찢은 종이로 만든 콜라주-웁킨이)로 만들었습니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었지만 모두들 몬슨 회장님을 생각하고 또 그분에 대해 배우며 함께 힘을 합쳤습니다.

헬레나는 가정의 밤을 좋아해요

코스타리카에 사는 아홉 살 소녀 헬레나 시는 아빠에게서 침례를 받은 그때, 자신이 교회 회원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헬레나는 가정의 밤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노는 것도 좋아합니다.



빛나는 아이디어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라”

—모로나이사 10:32



세상의 빛



김벌리 리드
실화에 근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린도전서 15:22)

에린은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템플 스퀘어에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야기를 그린 실물 크기 인물 상들을 보면서 음악과 이야기가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방에서 성탄절 전구가 반짝거렸습니다. 하지만 에린은 전혀 성탄절 기분이 나지 않았습니다.

“괜찮니?” 엄마께서 물으셨습니다.

에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꼭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에린과 같은 반인 한 남자아이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에린은 장례식에서 많은 사람이 흐느끼는 것을 보았고 자신도 많이 울었습니다. 잘 아는 친구는 아니었지만 에린은 가족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 가족도 그 소년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에린은 그와 같은 일이 자신의 또래인 누군가에게 일어날까 봐 무서웠습니다.

성탄절이 왔지만 에린은 전혀 신이 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걱정스러웠고 차에 탈 때, 부모님이랑 떨어질 때, 외출할 때면 집 밖에 있는 동안 뭔가 나쁜 일이 자신에게 생길까 봐 무서웠습니다. 템플 스퀘어에서 반짝이는 성탄절 전구도 에린의 가슴에서 근심을 사라지게 해 주지 못했습니다. 계속 불안을 느끼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빠는 “이제 곧 시작할거야.”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 탄생 장면을 가리키셨습니다.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이 들리고 목자들, 동방박사들, 마리아, 요셉 상 위로 조명이 비춰졌습니다. 에린은 익숙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서 구유에 누워졌습니다. 목자들이 경배를 드리고 현자들은 기뻐했습니다.

에린은 부모님의 얼굴과 예수님 탄생 장면 주위에 모인 관람객들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모두 행복한 듯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도 나쁜 일을 막을 수 없다면 왜 아기 예수에 대해 그토록 모두들 기뻐하는 것일까? 에린은 머릿속에 맴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면전에서 돌아가는 길을 비춰 주는 모범을 보이시고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빛입니다.”

말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라”, 성도의 벗, 1988년 1월호, 68쪽.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니다. 에린이 원하는 것은 무서움을 떨쳐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녹음된 선지자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선지자는 간증을 전하고 성경 한 구절을 읽어 주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린도전서 15:22)

에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에린은 그 말을 기억하기 위해 머릿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경전은 젊은이나 노인이나 모두가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은 에린도 알지만 전에는 이만큼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니다. 에린은 그런 것을 생각하기에는 자신이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에 대한 간증을 갖지 못할 만큼 어린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모든 사람은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들과 현자들이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이해했습니다.

에린은 그 작은 마구간에 서서 예수님 탄생 장면 뒤로 보이는 방문자센터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건물 안에는 못 박힌 손을 펴신 커다란 예수님 상에 조명 불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에린은 말구유에 누인 어린 아기와 어떻게 그가 성장해서 모든 권능을 다 지니게 되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분은 에린을 위해 목숨을 버릴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이 태어나신 것은 에린이 다시 살 수 있게 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에린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화가 에린을 감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반짝이는 성탄절 불빛보다 더 밝게 빛을 발하는 예수 그리스도 상을 바라봤을 때, 어두컴컴한 밤하늘은 거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니다. 내면에서 깜박이는 따스한 희망을 느끼기에도 바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막을 횡단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갈 길은 멀고 낙타를 타고 가시인지 울렁거리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지도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기분이 됩니까? 전진하기 위한 신앙을 가지겠습니까?

이천 년 전, 현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동쪽에서 밝게 빛나는 별을 보고 아름다운 선물을 아기 예수께 드리고 경배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현자들만 그 별을 본 것은 아닙니다. 바다 건너 미 대륙에서 니파이인들 역시 그 별을 보고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음을 알았습니다.

오늘, 구주를 생각나게 해 주는 그 별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 별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며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여 주셨던 것처럼 현자들에게 길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별은 또한 우리에게 대한 구주의 사랑처럼 항상 빛났습니다. 다음에 별들을 올려다볼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빛이심을 기억하세요! ■

CTR 활동: 구주의 상징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여러 가지에 비유하셨습니다. 이 비유들을 공부하면 그분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다음 구절들을 읽고 이 상징들이 구주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토론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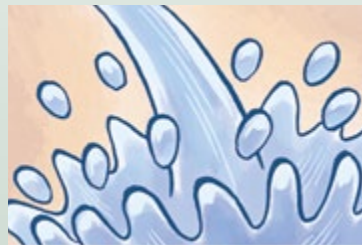
목자(시편 23:1 참조)



양(요한복음 1:29 참조)



떡(요한복음 6:51 참조)



물(요한복음 4:14 참조)



반석(니파이후서 8:1 참조)

노래와 경전

- “성탄 축하”, *어린이 노래책*, 32~33쪽
- 교리와 성약 11:28



바로 여러분

구주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생각나게 해 줄 성탄절 장식품을 만들어 보세요. 별들을 오려서 두꺼운 종이에 붙이세요. 장식품 뒷면에 자신이나 가족의 사진을 풀로 붙이고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적어 보세요. 뒷부분에 구멍을 뚫어 실을 끼워서 장식품을 완성해 보세요.

성탄절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폐기 스크린
실화에 근거

“주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그에게 올린 바
의인들의 기도도 기억하시리라.”(골몬서
5: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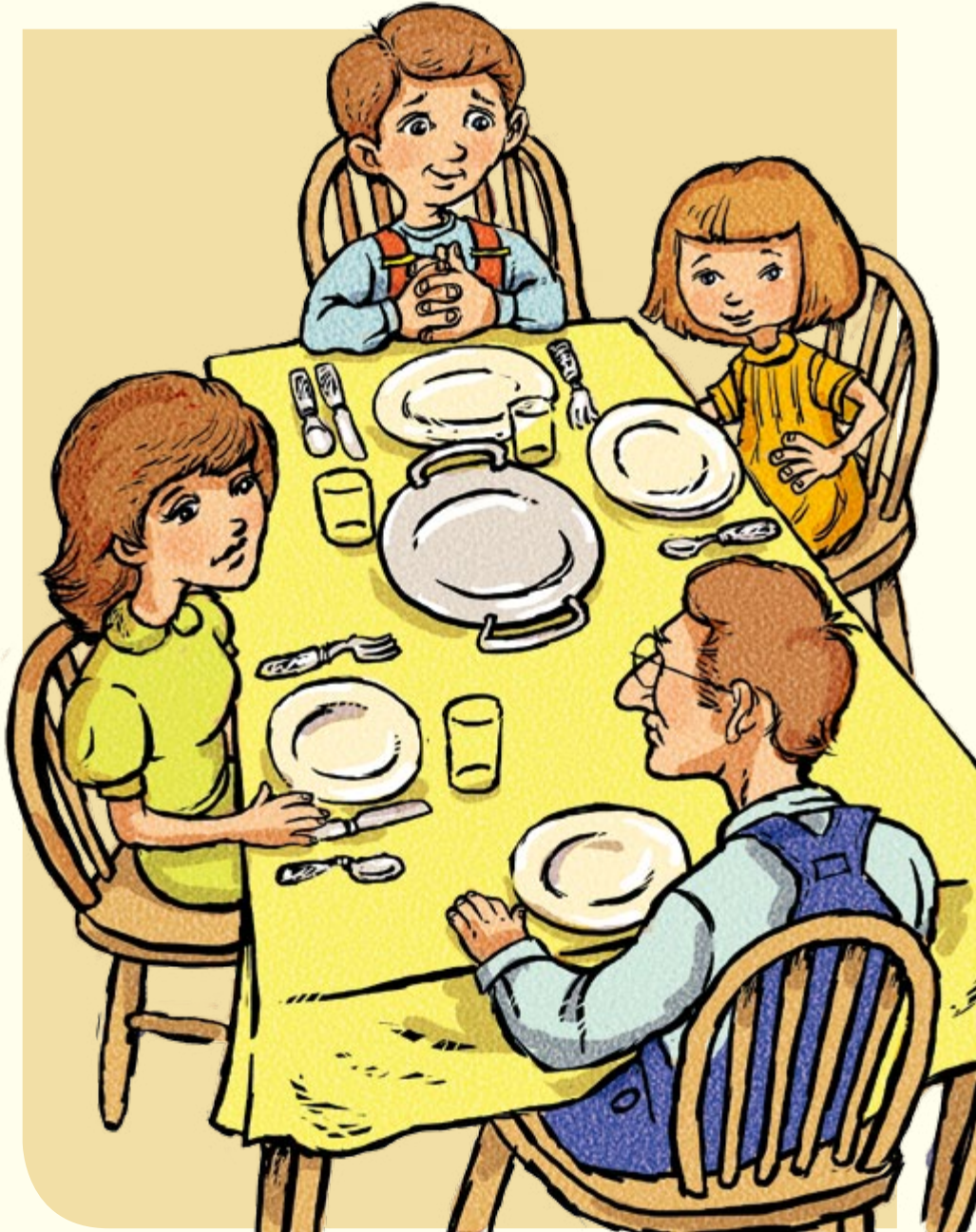
성 탄절 아침에 눈을 뜬 폐기는
재미있는 새 장난감과
풍성한 성탄절 식사를
기대하며 설렘했습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본 후 올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셨지만, 형편은 넉넉해지지
못했습니다.

풍성한 성탄절 식사가 준비될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채소 칸은 텅
비었고 냉장고에는 음식이라곤 하나도
없었습니다.

폐기와 오빠 맬컴이 부모님의
방 문으로 가 보았을 때, 두 분이
침대 곁에서 무릎을 꿇고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폐기와 맬컴은 부모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족이 먹을 것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서 밖으로 가자.” 폐기가 맬컴에게
말했습니다.

폐기와 맬컴은 밖으로 나가서
정원 근처에서 자라는 야생 고사리를



뽑았습니다. 올해에는 장난감을 못 받았지만 성탄절 분위기가 들도록 집을 꾸밀 수는 있었습니다.

야생 고사리로 집을 장식하니까 기분은 훨씬 좋아졌지만, 여전히 음식은 구경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주님이 주실 거야. 식사 준비를 하자꾸나.” 엄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빠께서 식탁에 접시를 내고 엄마는 포크와 숟가락을 놓으셨습니다.

아이들은 어리둥절해서 서로 쳐다보았습니다. 식사 준비는 되었는데 여전히 음식은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곧 지나 점심시간이 가까웠습니다. 폐기는 약간 배고픔을 느꼈으며 어떻게 먹을 것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아해했습니다.

12시가 되고, 12시 반을 지나 12시 45분이 되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그때 폐기는 누군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폐기는 얼른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폐기는 커크 가족이 현관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햄과 빵, 닭고기, 샐러드, 후식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폐기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성탄절 식사를 하려고 막 앉으려는데



여러분이 생각나더군요.” 커크 형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음식 좀 맛보시죠.”

아버지는 커크 형제님과 악수를 했고, 어머니는 식탁에 음식을 차리셨습니다. 폐기는 여전히 깜짝 놀란 채 눈이 휘둥그레져서 부모님을 쳐다보았지만 두 분은 마치 이런 일을 예상이나 한 듯 보였습니다.

폐기는 아침에 느꼈던 것이 옳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달랐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폐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폐기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



“신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겸손한 기도는 인도와 화평을 가져옵니다.”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기도라는 하늘의 선물을 사용함”,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8쪽.

샌드위치 친구

하이디 폴먼
실화에 근거

1. 차에 올라탄 윌리엄은 제러미 옆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2. 제러미의 엄마께서 차를 출발시키셨고, 윌리엄은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윌리엄은 땅콩버터와 잼을 바른 샌드위치를 꺼내 크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3. 제러미는 윌리엄의 샌드위치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맛있게 보였습니다. 제러미는 배가 고파졌습니다.



4. 엄마. 저 배고파요.
뭐 먹을 거 있어요?

미안, 제러미. 출발 전에
먹었잖니. 먹을 게 없구나.

알았어요.

5. 제러미는 우울했습니다. 샌드위치가 먹고
싶었습니다.

6. 윌리엄은 우울해하는 제러미를 봤습니다. 윌리엄은
샌드위치의 한쪽을 떼어서 제러미에게 건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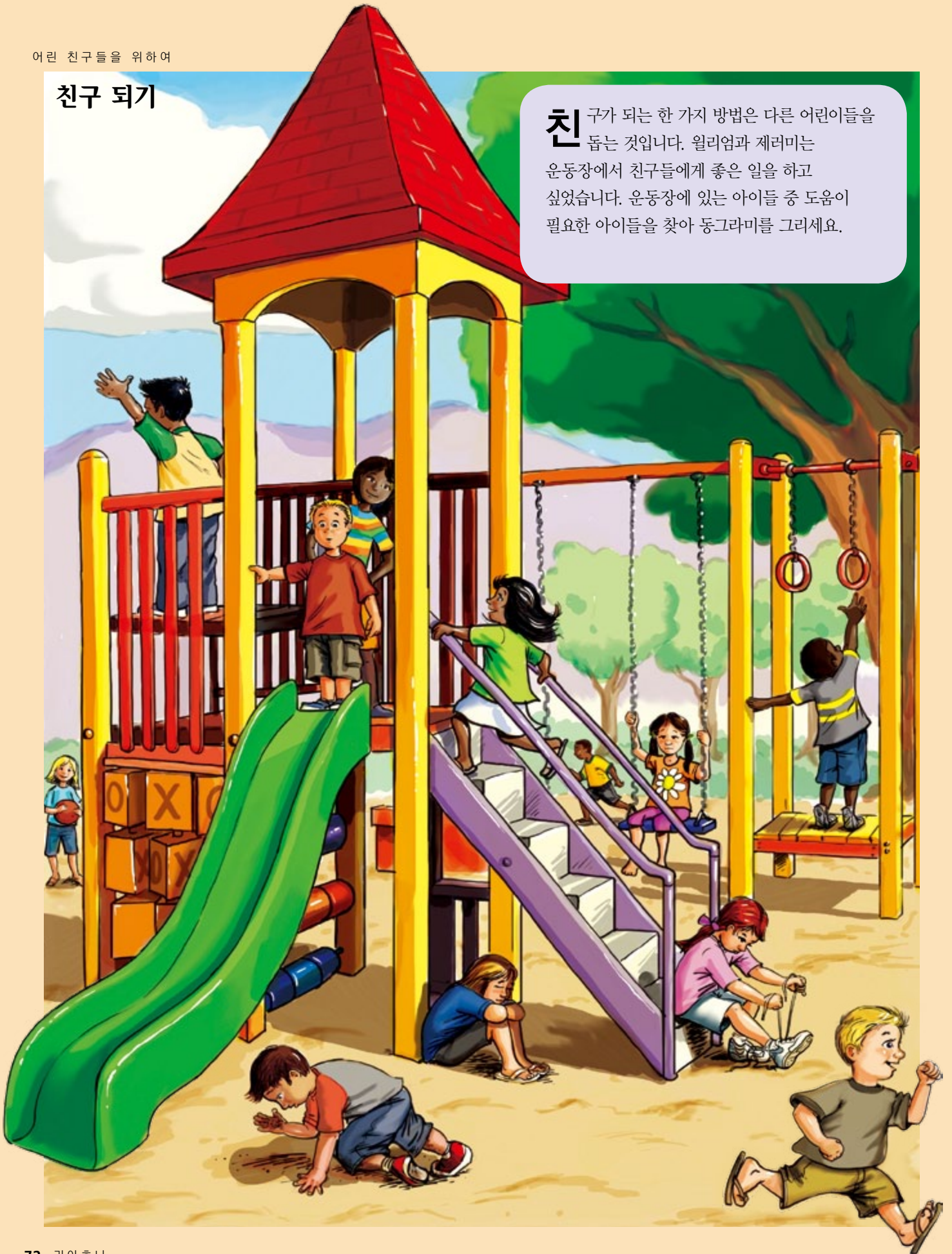
자, 여기!

7. 고마워. 윌리엄.
너 정말 착해.

뭐 이런 걸로.
친구 좋다는 게
뭔데!

친구 되기

친구가 되는 한 가지 방법은 다른 어린이들을 돕는 것입니다. 윌리엄과 제러미는 운동장에서 친구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운동장에 있는 아이들 중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찾아 동그라미를 그리세요.



색칠하기



조셉 스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간증했습니다.

“그는 살아 계시다는 것이니라 이는 우리가 실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를 보았고 또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증거하는 음성을 들었음이니”(교리와 성약 76:22~23).

교회 소식

더 많은 교회 소식과 기사를 보려면 news.lds.org에 접속한다

잡지 구독으로 복음을 나누십시오

헤더 휘틀 위클리

교회 소식과 기사

태 국에서 교회 자재관리부장인 카눅완 옹위라팍은 일상적으로 교회 회원들이 신청하는 성의나 후기 성도 출판물과 같은 자재와 교회 용품을 처리하는 일을 한다.

하루는 교회 잡지 구독을 갱신하기 위해 한 여성이 사무실로 찾아왔는데, 이 여성은 옹위라팍 자매를 깜짝 놀라게 했다. 회원들은 대개 단위 조직의 교회 잡지 담당자를 통해 구독을 갱신하지만, 그 여성은 자신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자신을 불교도라고 소개하면서 교회 회원인 친구에게 구독권을 선물로 받아 교회 잡지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옹위라팍 자매는 이렇게 적었다. “그 여성은 교회 잡지가 정말 훌륭하며 자녀들에게도 얼마나 소중한 책인지를 이야기했어요. 자녀들이 하교해서 교회 잡지가 온 것을 보면 신이 나서 단숨에 전부 읽어 버린다고도 해요.”

그 여성은 이 잡지가 “엄청난 가치”가 있으며 자녀들에게 훌륭한 도덕률과 어휘를 가르친다고 칭찬했다. 깊은 감명을 받은 그 여성은 구독을 연장했고, 함께 일하는 동료의 자녀들에게 유익이 되길 바라며 그들을 위한 구독 신청도 했다.

옹위라팍 자매는 이렇게 적었다. “심지어 비회원들조차도 [잡지]의 가치를 보고 느낄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회원들에게 교회 잡지를 읽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고 지속적으로 장려해 왔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톰 페리 장로는 이 잡지의 지대한 영향을 이렇게 강조했다. “이러한 잡지에 있는 훌륭한 정신은 따뜻함, 사랑, 복음의 힘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가득 채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가족의 중요성”, 리아호나,

또한, 지역 잡지 담당자에게 연락하거나 help@store.lds.org에 이메일을 보내거나 해당 국가 고객 서비스 안내원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가별 안내원의 전화 번호 목록은 store.lds.org에 있다. 화면 하단에서 **고객 서비스** 아래에 있는 **고객 센터**를 클릭한 후 **고객 센터** 아래에 있는 **전화 링크**를 클릭한다.

2003년 5월호, 42쪽)

칠십인이자 신권부 집행 책임자 보조 및 교회 잡지 편집자로 봉사하고 있는 크레이그 에이 카든 장로는 잡지가 각 개인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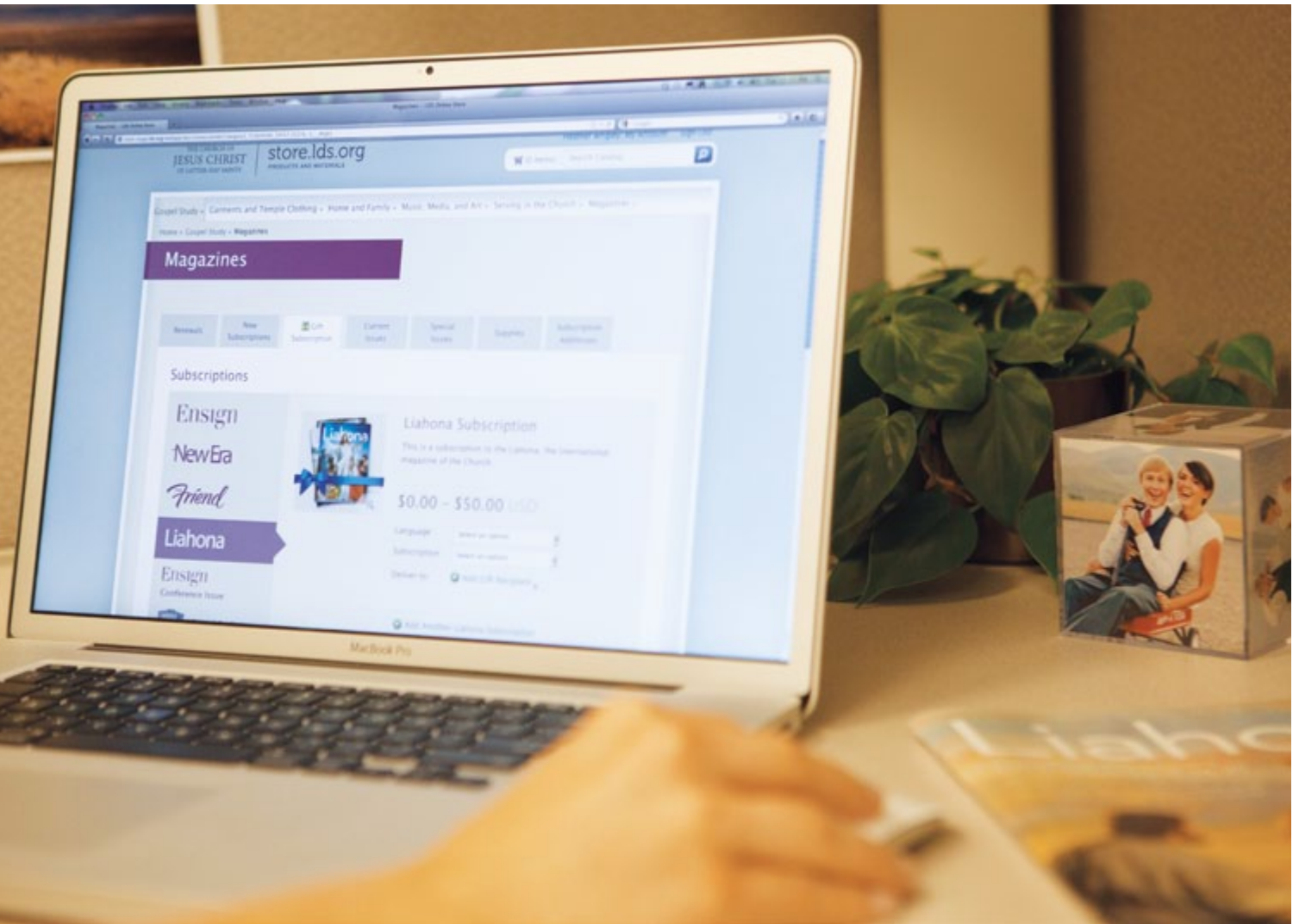
“교회 잡지는 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선지자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권고를 담은, 교회의 공식적인 목소리 중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교회 회원이든 아니든 간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처한 보편적인 상황을 흥미롭게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끄는 읽을거리가 매달 실립니다. 진지하게 진리를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 안에 있는 영감에 찬 가르침과 인도에서 큰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만일 모든 교회 잡지 구독자가 비회원 친구나 친척에게 구독권을 증정한다면, 170만 명에 달하는 새로운 구독자들이 매달 교회를 더 친근하게 알아가게 될 것이다.

교회 온라인 상점인 store.lds.org를 통해 쉽고 빠르게 한 권 또는 그 이상을 구독 신청하거나 가족 혹은 친구에게 잡지 구독권을 선물할 수 있다. 프렌드, 뉴 이라, 엔사인은 영어로만 발행되지만, 이 세 잡지에 실린 기사가 담긴 리아호나는 여러 언어로 발행된다.

애리조나 페오리아 스테이크의 한 감독은 프렌드 일 년 구독권을 선물하는 것이 워드 어린이들에게 살아 있는

사진: 리 윌러즈



회원들은 교회 잡지 구독 증정을 통해 나이와 종교, 배경을 막론한 모든 비회원 친구와 가족들에게 복음을 나누도록 권장 받는다.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씀을 가까이하게 해 주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미국 텍사스에 사는 페넬로페 비우드워드는 리아호나 구독권을 사촌과 외국에 사는 친구와 은사에게 보냈다.

“저는 이 잡지를 읽고 [제 사촌이] 성약을 맺고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구독권을 증정하는 것이 “[제 친구가] 언젠가는 회복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잡지를 주문하거나 구독권 증정을 하려면 store.lds.org에 접속한다. 화면 왼쪽에 잡지 주문에 관한 메뉴가 있고, 온라인 주문 절차를 통해 구독 갱신 및 신규 구독, 구독 증정을 할 수 있다.

Store.lds.org는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볼 수 있다. 이 언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없다면, 여러 나라에 위치해 있는 교회 배부 센터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잡지 주문과 증정을 할 수 있다. ■

언어 선택 페이지에서 100개 이상의 언어로 교회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세 계 10대 주요 언어인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들은 자신의 언어로 된 교회 자료를 찾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LDS.org에 있는 언어 선택 페이지를 아는 사람들은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 교회 주요 자료를 찾을 수 있다.

LDS.org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언어 페이지 링크를 찾으려면 LDS.org 홈페이지 오른쪽 위 또는 왼쪽 아래에 있는 **세계 지도 그림**을 클릭한다. LDS.org 팀은 2012년 말까지 크로아티아어, 마다가스카르어, 가나어를 포함한 108개 언어 페이지를 마련하고자 한다.

각 언어 페이지마다 사용 가능한 자료는 각기 다르지만 어떤 것이든 인쇄하거나 다운로드하는 할 수 있다.

올해 언어 페이지에는 PDF 형식으로 된 리아호나를 40개 이상의 언어로 제공하는 것과 간단한 텍스트 PDF 형식으로 된 2012년 4월 연차

대회를 90개 이상의 언어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몇 가지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었다. LDS.org에 99개 언어로 제공되던 물문경 PDF 파일에도 24개 언어가 추가되었다.

교회는 교회 자료를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특정 언어로 소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번역된 자료들을 올리고 있다.

이 단계별 계획에 따라 성찬 기도문, 신앙개조, *Gospel Fundamentals*[복음 기본 원리] 교재, 엄선된 연차 대회 말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간증** 팜플렛 등과 같은 주요 자료를 우선하여 번역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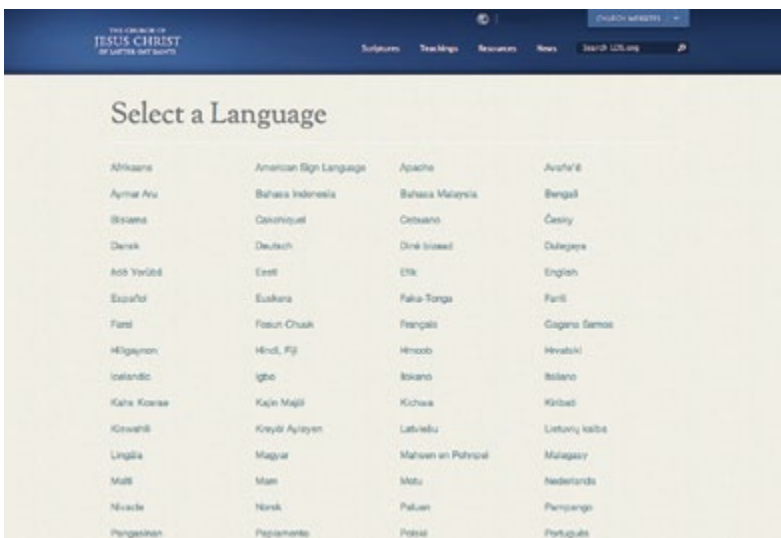
경전, 음악,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제일회장단 메시지, 방문 교육 메시지 등과 같은 추가 번역 자료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교회 회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소개될 것이다.

자료들은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재가를 받아 번역되고 제공된다. 또한 지역 회장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정 언어로 자료가 제공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디지털 채널 선임 제품 부장인 매트 로빈슨은 이렇게 말했다. “이러한 페이지는 모든 회원이 일요일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지역 지도자들은 회원들에게 이러한 자료를 부름과 가정에서만 아니라 개인 학습을 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줄 수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예레반 지방부 회장단 제2보좌인 사르지스 야바잔은 아르메니아 회원들이 부름 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인쇄하기 위해 아르메니아어 페이지를 기쁘게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들은 또한 교회에 관한 정보를 다운로드하거나 읽고 연차 대회 자료를 찾기 위해 모국어로 제공되는 페이지를 사용하고 있다. ■

인쇄 및 다운로드가 가능한 수십 가지 자료가 LDS.org의 100개가 넘는 언어 페이지에 추가되었으며 이러한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노래와 음악, 헌사의 밤으로 몬슨 회장의 삶을 기리다

게리 아방
처치 뉴스 편집장

20 12년 8월 17일,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의 85세 생일을 기념하여 음악과 내레이션, 헌사가 어우러진 성대한 기념행사 “Golden Days: A Celebration of Life(전성시대: 삶을 축하하며)”에 참석하고자 약 2만 명이 컨퍼런스 센터를 메웠다.

이 행사는 8월 21일에 맞은 몬슨 회장의 85번째 생일을 기념하여 몬슨 회장이 좋아하는 브로드웨이 쇼의 음악과 메시지, 여러 영감에 찬 노래로 꾸며졌다.

몬슨 회장은 아내인 프랜시스 존슨 몬슨과 그 외 가족과 함께 청중석 첫번째 열에 앉아 공연을 감상했다.

제일회장단 제1보좌인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몬슨 회장이 “애리조나 사막의 어느 시골 도로”에서 한 부부와 그들의 어린 자녀들과 악수를 하기 위해 가던 길을 멈춰 섰고 뒤이어 나타난 많은 사람과도 참을성있게 인사를 나눴던 일화를 이야기하며 몬슨 회장에게 찬사를 보냈다.

아이어링 회장은 몬슨 회장이 세계 여러 곳에서, 대개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했는데, “주님을 위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아 왔다고 말했다.

“그러한 광경은 그분과 인사를 나눈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에게도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저도 그들도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느껴서 우리가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제일회장단 제2보좌인 디에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몬슨 회장에게 이렇게 축하를 전했다. “소중한 나날로 가득한 삶을 살아오신 …… 몬슨 회장님, 당신은 어둠에 빛을 가져오는 친구이며 우리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선지자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하며 지지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외 많은 교회, 종교, 사회

명사들을 비롯한 오랜 친구들이 사전에 촬영한 동영상으로 인사를 전하며 몬슨 회장에게 경의를 표했다. 몬슨 회장은 또한 오랫동안 스카우트 활동에 참여한 공로에 대해서도 표창을 받았다.

순서를 마칠 무렵, 몬슨 회장은 스코틀랜드 작가이자 시인인 제임스 배리의 다음 말을 인용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을 주셔서 인생의 12월에도 6월의 장미를 가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Laurence J. Peter, comp., *Peter's Quotations: Ideas for Our Time*(1977), 335 참조)

그런 후 “오늘 저는 기억이란 꽃다발을 한 아름 받았습시다.”라고 말했다.

이날의 백미는 몬슨 회장 삶의 “황금기”를 상징하는 수백 송이의 노란 장미로 컨퍼런스 센터 무대를 수놓은 것이었다. ■

“Golden Days: A Celebration of Life(전성시대: 삶의 축하)”는 음악과 노래로 몬슨 회장의 유년시절, 결혼, 군복무, 교회 봉사 등을 돌아보는 프로그램이었다.



사진: 데브라 케리

카보베르데에 세워진 첫 번째 스테이크

2012년 4월 29일 일요일, 당시 유럽 지역 회장이던 에릭 더블유 코우피쉬케 장로는 천 명이 넘는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인 프라이아에 카보베르데의 첫 번째 스테이크를 조직했다.

새로 조직한 카보베르데 프라이아 스테이크를 감리할 회장에는 로시베이트 테제이라, 제1보좌에 아딜손 몬테이로, 제2보좌에 호세 피레스가 부름받고 성별되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이어질 런던 예배당 재헌납

2012년 올림픽을 앞둔 7월 1일, 영국 런던에 위치한 교회의 유서 깊은 하이드 파크 예배당이 예배를 위한 예배당과 방문자 센터로 개조되고 재헌납되었다.

당시 유럽 지역 회장이던 칠십인 에릭 더블유 코우피쉬케 장로는 건물을 재헌납하며 이렇게 말씀했다. “제 소망은 앞으로 여러 해를 걸쳐 말 그대로 수십만 명이 이 건물을 찾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뉴칼레도니아에서 교회의 성장을 기념하다

2012년 5월 27일에 태평양 지역 회장인 칠십인 제임스 제이 해물러 장로는 팔백 명의 회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뉴칼레도니아에 첫 번째 스테이크를 조직했다.

해물러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지면, 뉴칼레도니아의 후기 성도들과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올 것입니다.”

새 스테이크인 뉴칼레도니아 노우메아 스테이크는 집회소 여덟 채와 회원 이천 명이 속해 있다.

초대 스테이크 회장으로 부름을 받은 조지 기디는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뉴칼레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과 모든 원리를 가르쳐 그들과 그들 가족, 직장 환경, 지역 사회에 행복이 깃들게 하는 것입니다.” 보좌로는 마크 모셀린, 티에리 고로디가 부름받았다.

사진: 호세 에이 테제이라 장로



카보베르데 프라이아 스테이크 회장단(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제1보좌 아딜손 몬테이로, 회장 로시베이트 테제이라, 제2보좌 호세 피레스

이디오피아에 세워진 첫 번째 후기 성도 집회소

이디오피아의 회원들은 첫 집회소를 갖게 된 데서 오는 축복을 이미 보기 시작했다. 아디스 아바바시와 아다마시 사이에 있는 고속도로 변에 위치한 집회소 건물은 3층 건물에 지하 주차장을 갖추고 있다.

최근 단신

제 일 회장단은 중앙 아메리카 지역 회장이 변경되었음을 발표했다. 로버트 시 게이 장로를 교회 본부로 배속하고 그 자리에 케빈 알 던컨 장로를 불러 제2보좌 부름을 주었다. 이 변경으로 *Ensign*과 *리아호나* 8월호에 공표된 지역 회장단 임무 지명 도표상의 임무 지명은 변경된다.

그러나 집회소의 기술적 측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새 건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주거지역에서 모임을 하던 지부 회원들에게는 이 건물이 신앙의 상징이라는 점이다.

데브레 자이트 지부 회장인 에프렘 아에메로 메코옌은 이렇게 말했다. “이 새 건물에 갈 때마다 우리가 맺은 성약을 기억하게 됩니다. 대장 모로나이가 자유의 기치를 들어 올렸을 때처럼 저 자신이 강화됩니다.” ■

리아호나에 답이 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오면서 때로는 복음이 주는 수많은 축복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 충분하게 감사드릴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한 축복 중 하나는 영감 어린 이 *리아호나* 잡지입니다. 읽을 때마다 제게 필요한 정확한 답을 받게 되어 놀랍습니다. 그 책에 실린 것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루드밀라 엘, 13세, 아르헨티나

우리의 간증이 자랍니다

*리아호나*는 저와 제 가족의 삶을 바꿔 놓았습니다. *리아호나*는 누구나 그 안에서 배움과 지식을 얻을 수 있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이 잡지가 있기에 우리가 강화되며 교회에 대한 우리의 간증이 자랍니다.

야나 마르셀라 에체니코 오요스, 콜롬비아

가정의 밤 아이디어를 보내주세요

리아호나는 여러분의 가정의 밤 아이디어와 경험담을 찾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성공적이었거나 의미 있었던 가정의 밤에 관한 것이거나, 가족의 구체적인 필요에 맞게 가정의 밤을 어떻게 조정했는지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작성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경험담(어떤 언어든) liahona@ldschurch.org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명, 이메일 주소, 워드 또는 지부, 스테이크 또는 지방부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호에는 가정의 밤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사와 활동들이 실려 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이다.

“빛과 간증을 전통으로”, 10쪽: 기사를 요약한 후, 가족들에게 건물 주위에 비계를 치는 목적을 보여 주는 시각 보조 자료를 만들자고 제안해 본다. 가족 및 여러분 삶의 여러 면을 더 높이 쌓아 올릴 수 있도록 교회가 여러분 가족에게 어떻게 “비계”를 제공하는지 토론한다.

“선지자들이 성탄절을 보내는 방법”, 20쪽: 선지자의 생애에 있었던 여러 이야기를 읽고, 지난 성탄절에 일어난 특별한 일 중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의 삶에 감동적인 경험으로 남은 것이 있었다면 나누도록 한다. 성탄절에 어떻게 하면 선지자들의 모범을 따를 수 있을지에 대해 토론해도 좋다.

“계명을 지킬 때 오는 안전과 평화”, 32쪽: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성정으로 가는 길을 그리게 하고 그 길을 따라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게 할 수 있다. 어린 자녀가 없는 다른 가족은 전체 기사를 읽고 “행복으로 가는 길은 계명에



순종하는 의로움과 함께 시작[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토론해 보도록 한다.

“어떻게 그리스도께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48쪽: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의 기사를 함께 읽어 본다. 자녀들에게 성탄절에 구주께 드리고 싶은 것을 적게 하고 구주께 자신들이 약속한 바를 성탄절 선물로 포장하게 할 수 있다. 육체적 도움이나 영적인 도움 또는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한 사람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해 토론해 보도록 한다.

“성탄절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68쪽: 가족과 함께 폐기 스크론크에 대한 이야기를 읽도록 한다.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던 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자녀들에게도 그런 적이 있는지 말해 달라고 한다. 가족들이 성탄절에 어떠한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지를 모두 파악해 보도록 한다.

무언의 간증

나의 아들 데릭은 전체성 실어증 때문에 말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데릭은 가정의 밤을 정말 좋아하고 가족과 나눌 공과를 준비하느라 여러 달을 보내곤 한다.

데릭이 한 공과 중 “리하이의 꿈”에 관한 공과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아들은 집안 곳곳과 바깥에 줄을 쳐 두었다. 우리는 공과를 시작하며 찬송가 “나 그리스도 믿습니다”를 듣고 탁자에 놓인 리하이의 꿈을 그린 그림을 보았다. 그런 후 데릭은 우리를 한 사람씩 이끌고 줄을 따라 갔다.

줄을 따라 한 편에는 그리스도의 그림들이, 반대 편에는(라디오, TV, 게임 같이)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놓여 있었다. 우리는 데릭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인 “내 구주 살아 계시다”를 듣게 되면 끝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았다.

모든 사람이 줄을 따라가는 과정을 마친 후, 데릭은 DVD로 성악이란 영화 중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대륙 백성에게 나타나신 마지막 장면을 틀어 주었다.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구주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전하는 동안 영이 참으로 강하게 임했다.

웬디 톰슨, 미국

쿠엔틴 엘 쿡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햇님반, 공보, 복음의 기쁨

몇년 전, 엠 러셀 벨라드 장로님과 제가 교회 공보부의 총관리 역원 자문 역할을 할 당시, 미디어 매체들이 종종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알아보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 벨라드 장로님과 저는 제일회장단의 지시에 따라 주요 신문사의 편집국과 만나 후기 성도가 정치적으로 중립임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 토론하고 싶다면 우리와 이야기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방문은 잘 성사되었고 요청이 받아들여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디어들이 후기 성도들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부 예전의 고정관념이 무너졌고, 사람들이 우리를 교육받고 깨우친 시각에서 삶을 살려는 사람들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 바깥 사람들에게서 제대로 된 인식을 보았습니다. 후기 성도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것은 아니며 우리 회원들이 흥미롭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서로 굉장히 다르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와 더불어 교회 회원이 되어 친구들과 이웃들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 묻는 질문에 목소리를 높여 답하는 것은 훌륭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기쁨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인

햇님반이 공보와
관련이 있습니까?
복음의 기쁨을
나타낼 때
그렇습니다.

결말이 무엇일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있으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될 때 복음을 나누려 하는 훌륭한 회원 선교사들은 종종 기쁨이 가득한 사람들을 볼 때 흥미롭습니다. 선교부 총책임자였을 때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몇몇 침례식이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흥분이 된 우리는 어찌 된 일인지 궁금했는데,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요 원인은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햇님반 이야기를 한 한 자매님이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후 그 자매님은 기쁨으로 가득 차서 동료들에게 전날 자신이 가르친 어린아이들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동료들은 햇님반 이야기를 듣고 싶어 전될 수 없을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세상과 미래에 대해 다 같이 똑같은 걱정을 하며 살아가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 갑자기 기쁨에 넘치고 미래를 대변하는 아이들에 대해 기뻐하는 한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자매님은 분명 구주를 사랑했고, 그 사랑은 퍼져 나갔습니다. 그 자매님의 동료들은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가진 것에 감사할 때, 기쁨을 느끼고 표현할 때 우리는 더 행복해집니다. 주께서 우리가 하기를 바라시는 것을 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며 그 결과로 자녀와 친구, 이웃을 포함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더 행복해집니다. 기쁨이 열쇠입니다. 복음의 기쁨을 나눌 때, 우리는 주께서 우리가 성취하기를 바라시는 것들을 이뤄 냅니다. ■

Mormon Channel 인터뷰에서 각색. mormonchannel.org/conversations/27에서 영어로 된 전체 인터뷰를 들을 수 있다.

몰몬경,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
조셉 스미스—역사 1:29~35, 42~54, 59~60



조셉 스미스



모로나이 천사



올해 리아호나에는 몰몬경 경전 인물들이 실리게 됩니다. 쉽게 또는 오래 쓰려면, 각 인물을 잘라 내어 두꺼운 종이나 작은 종이 봉투 또는 작은 막대기에 풀이나 테이프로 붙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등장 인물 이야기가 나오는 경전 구절이 적힌 라벨과 함께 각 경전 인물 세트를 봉투나 가방에 넣어 보관해 두세요.



성탄 절기에 성전 부지를 장식하며, 그곳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기쁨 넘치는 평화를 느껴 보라고 손짓하는 등불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빛으로서 빛을 발하시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 의식, 특히 그분의 거룩한 집에서 받는 복음 의식을 통해 그분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라고 권유하신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가운데 하나는 성전 인봉 의식을 통해 결혼과 가족 관계가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24쪽의 “거룩한 탈바꿈”과 28쪽의 “영원한 가족에 초점을 맞추며”, 그리고 64쪽의 “세상의 빛”을 참조한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리아호



새로운 청소년 학습 자료를 준비하다

1월이 시작되면, 아론 신권 정원회와 청년반, 청소년 주일학교 반에서 이루어지는 가르침과 학습은 혁신될 것입니다.



새로운 청소년 학습 자료를 활용해 본 사람들의 의견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 있는 여러 스테이크에서 일요일 학습에 관한 새로운 접근법을 실행해 보았습니다. 이에 참여한 사람들은 큰 변화를 겪었다고 보고했으며, 그들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청소년들의 이야기

“제일 마음에 드는 건 학습이 주일학교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 한 주 내내 계속 배우거든요.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시면 다음 일요일까지 준비해서 가야 하죠.”

“방향만 제대로 잡아 주면 반원을 공과에 참여시키는 것은 굉장히 쉽죠. 실제로 공과를 가르치는 건 정원회 회원들이니까요.”

“매번 공과가 끝날 때 …… 그 공과를 누가 가르쳤든 간에 과제를 받게 돼요. …… 그러면 다음 주 내내 그 도전 과제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게 되죠.”

교사와 지도자들의 이야기

“우리는 지난 주에 청녀들이 받은 도전 과제에 대해 토론합니다. 대개, 청녀들이 그 주에 그 교리에 순종하고 배우려 하면서 겪게 되는 경험들은 ……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더 빨리 영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는 기회를 주었고, 청남들은 성취했습니다. 청남들은 복음 토론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이야기할 때, 간증이 커지며 그 교리를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이 특별 표지 뒷면, 또는 [lds.org/youth/learn](https://www.lds.org/youth/learn)을 살펴보세요.



새로운 청소년 학습 자료

질의응답

왜 바뀌나요?

학습에 관한 이 새로운 접근법은 청소년들이 지금, 그리고 앞으로 친구들과 복음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선교 사업을 하고, 가족에게 봉사할 때를 위해 잘 준비하도록 돕고, 복음에 대한 간증을 키워줄 것입니다. 그러한 일은 활발하게 경전을 찾고 생각을 나누며, 배운 것을 생활에 적용해 보라는 권유를 받아들일 때 실현될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공과 시간에 살아 있는 선지자들이 최근에 전한 가르침을 공부하게 됩니다.

어떤 반에서 이 새로운 공과를 시행합니까?

아론 신권 정원회, 청년 반, 12~18세 청소년 주일학교 반에서 하는 일요일 교육에 사용합니다. 각 반은 가령 '신회'와 같이 매달 한 가지 주제를 정하여 동일한 교리를 배우고, 복음대로 생활하고, 복음을 가르쳐 보면서 서로를 강화하는 것에 집중할 것입니다.

주일학교 공과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매달, 청소년들이 복음에 관해 알고 싶어하는 부분을 토대로 주제를 정하여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총 12가지 주제에는 각각 교사가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개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한 개요를 두 주 이상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그달의 주제에 관한 경험과 의견을 나누며 복음을 가르쳐 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배우고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학습 개요는 어떤 것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개요를 통해 교사가 먼저 교리를 배운 후 청소년들에게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필요 사항에 따라 적절한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요에는 참조와 링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링크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 교회 지도자들이 전한 최근 가르침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새로운 청소년 공과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아론 신권, 청년, 주일학교 각각으로 분류된) 학습 개요는 [lds.org/youth/learn](https://www.lds.org/youth/learn)에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인쇄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일요일 교육은 상호 향상 모임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반과 정원회 회장단은 상호 향상 모임 활동을 계획할 때 그달의 주제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학습 개요에서 제시하는 활동 아이디어가 계획을 세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개요는 [lds.org/youth/learn](https://www.lds.org/youth/learn)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과는 어떤 언어로 볼 수 있습니까?

공과는 한국어, 중국어(광둥어, 표준 중국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피지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헝가리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몽고어, 노르웨이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사모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타이어, 통가어, 우크라이나어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단위 조직은 과거 자료로 계속 가르칠 것입니다.



1월부터 시작합니다-와서 나를 따르라: 청소년을 위한 학습 자료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방법에 따라 함께 배울 수 있을까요?

청소년

주님의 방법에 따라 배우는 것에는 수업 전에 미리 배울 준비를 해서 오고, 경전과 선지자의 말씀을 찾아보며, 복음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복음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누는 것이 포함됩니다.

교사

학생들의 생활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해하고, 진분을 맺고, 그들이 개심하는 데 필요한 학습 경험을 적절히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교과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교리를 이해하고, 청소년들을 학습에 참여시킬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칠 때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영의 인도에 따른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

여러분은 자녀가 배우는 것에 관해 관심을 보임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학습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배운 것을 가족들에게 가르쳐 보라는 권유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회를 준다면, 자녀의 간증이 자라나고, 복음을 나누는 능력도 더 커질 것입니다.



청소년 담당 성인 지도자

여러분은 이 교과 과정을 여러분의 와드 또는 지부에서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훈련을 실시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가르치는 모범을 보인다면, 교사들도 그런 방식으로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의 필요 사항에 집중하고, 그에 관해 청소년과 부모, 지도자, 교사들이 함께 토론해 보도록 도울 방법을 찾으십시오. 이 새로운 교과 과정은 여러분의 와드 또는 지부 청소년들의 개심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보려면 *Teaching the Gospel in the Savior's Way*와 lds.org/youth/learn을 참조한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